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月)
本紙夕刊十二面

外交交涉을中止코 獨自의對策講究

中國側에暴虐事件絶滅誓約實行식힐이必要

現地三省首腦意見一致

【南京二十日發同盟】漢口事件에關한 公電의到着으로 目下南京에 滯在中인 川越大使는 須磨 佐藤南武官及 大使館首腦部等과 昨夜부터 二十日午前까지 協議를 거듭한結果 派出 調査한 意見에 一致를보앗는데 事態가 이와가티된以上은 여러가지程度까지自由手段으로써 獨自의措置를 不得已講究할수밧게업다하야 川越大使와張群氏의 外交交涉은 一旦이를中止하고 川越大使는 南京을떠나게될 模樣이다 卽正式交涉은 겨우一回의 會見을 하엿슬따름으로 成都北海兩事件의解決折衝의 端緒도發見하지못하엿는데 又復漢口事件이 勃發하엿고 또 事件이 이러날때마다 國民政府는 陳謝와遺憾의意로 事件에對한 解決方針까지 決定치못한 狀態에鑑하야 日本側으로서는 在京要人만을 相對로 南京에머므를 必要가업다는 見解를 갓게되엿한바 一兩日間의 中國官憲의動靜은 重大危局의 分岐點으로 深히 注目되어잇다

【南京十九日發同盟】漢口事件에關하야 日本大使館當局은 白晝에日本租界에侵入하야 公務中의警察官을射殺한것은 前例업는行爲로 斷然容許할수업다하야極度로憤激하고잇다 公報의到着을待하야 川越、須磨、佐藤大使館首腦部는 其對策을協議할터인데 當局이 가장重視하는點은 犯人과背後關係及 最近頻發하는 不祥事件에 鑑하야 이것은 有力한抗日團體의 計劃的行爲인것이容易히豫想됨으로 眞相의判明을待하야 斷乎 中國側의 責任을 追及하는同時에 成都、北海兩事件과併行하야 此種事件의絶滅을誓約實行케할 方針이다 그리고 日本側으로서는 犯人이 白晝에日本租界를 襲擊한것은 警備의責任追及을 免할수업는 것이라고 推定될바가 잇슴으로 이러한 消息는 斷然不許하고 어데까지 强硬態度를 堅持하야 中國側의態度를嚴重監視할方針이다

居留民保護코저 漢口에陸戰隊를駐屯

【上海二十一日發同盟】漢口事件에關聯하야 第三艦隊司令部는 左와如히發表하엿다

昨年十一月 上海에서이러난 中山兵曹狙擊事件이 勃發한以來 山兵曹狙擊事件、角田巡査射殺(一月汕頭) 萱生射殺(七月上海) 長沙爆彈投下(八月)成都虐殺(八月) 中野虐殺(九月北海)汕頭爆彈投下(九月)及 今回漢口에서 發生한 吉岡巡査射殺等 排日테로事件이 全中에 亘하야 續出되여 反日行爲에는 中國國民革命軍北上以來 滿洲事變勃發以前의 狀況에 지나치는바가잇서 全中에잇서 모다日本臣民의 生命財產의 不安이甚한 이情勢에鑑하야 中部中國의 樞要地點인 漢口日本租界에 相當히 有力한 陸戰隊를 駐屯식힐必要를 認定하고 此際 派遣部隊의到着까지 時急에備하기爲하야 爲先 上海陸戰隊로부터 ○○隊를 驅逐艦二隻에 搭乘식혀 二十日急遽 遡江하야 漢口에派遣하엿다

三陛下께옵서 李王大妃御慰問

天皇、皇后、皇太后三陛下께옵서는 故尹澤榮侯夫人兪氏逝去를 御聽聞하옵시고 二十一日 李王大妃殿下께 喪中御慰問으로 御菓子一箱을 下賜하압시엿다

梨本宮殿下 門司御着

【門司電話同盟】九州及 南朝鮮地方의 防空演習을 御統監하시기爲하야 梨本宮殿下께서는 二十一日朝九時三十分特急富士로 下關御着 川岸第十二師團留守司令官 松村下關要塞司令官 柳山福岡縣知事 井川門司稅關長等官民多數의 奉迎裏에 門鐵淸見丸으로 御渡峽 同十時十五分 門司御發 長崎에向하시엿다

總督、總監昌德宮伺候

昌德宮大妃殿下의 御生母故尹澤榮侯未亡人兪氏逝去에 對하야 南總督及大野政務總監夫妻는 二十一日午前九時半 昌德宮 樂善齋에 伺候 大妃殿下께 御弔意를드렷다

約束事實업다고 中國側協定不行

日本軍激怒、緊急協議中

【北平二十一日發同盟】二十日午後十二時를 期限으로 實行할豫定이엇든 現地協定은 二十一日朝까지 何等中國側에서 實行하는바가업는것이 判明되여 中國은 豐台及 其附近의第二十九軍의撤退를 마침내 重大한 背信的協定破棄를 하게되엿다 그리고 協定實行의 責任者第三十七副師長許長林氏는 日本側의 撤退要求에對하야 全然協定을 締結하엿음이업다고 否定하고 細部의結束을實行한記憶이 업다고 完全히 事實을 否認하고잇다 이때문에 日本軍當局은 激怒하야 今日早朝來 緊急協議를 開하고 目下 對策을 協議中이다

日本租界嚴戒 陸戰隊出動하야

【漢口二十日發同盟】漢口에駐屯하는 陸戰隊指揮官 笹川大尉는 二十日 午後二時 全員에게 警備出動을 命하야 日本租界內의 警備를 一層嚴重히 하고 治安維持에 當하기로 되엿다

所要陸戰隊增遣

海軍上奏後正式發表

【東京電話同盟至急報】海軍省午後二時發表、海軍省에서는 二十一日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自衛手段을 講究하기爲하야 所要陸戰隊를 日本內地로부터 增派하기로 決定하고 上奏、海軍省으로부터 當局談의 形式으로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昨年十一月上海에서 勃發한中山兵曹射殺事件以來 一般警戒를 嚴히하엿음에도 不拘하고 其後 事件이 이러나지못하엿다 그리고 事件解決에對한 中國當局의 態度는 公正의 措置를 取하지아니하고 或은 犯人을 隱避하야 眞相의 糾明을 阻害하는等 誠意를 疑하지아니할수업고 頗히 遺憾으로 生覺하는 바이다 그러는中 成都事件、海州에서 일어난 事件、上海에서 發生한 萱生射殺事件、長沙에서 北海의 中野殺害事件、그리고 漢口에서 吉岡巡査射殺事件 그리고 中國全土에 亘하야 最近에 ... 增大하는 傾向을 보이는바 北海事件에잇서서 日本側이 要求하엿음에도 不拘하고 現地調査를 實施하는데 있어서 ... 妨害하고 被害者의 消極的 ... 遺憾에 對하야 ... 日本海軍으로서는 日中關係를 考慮하야 自重的態度를 持續하야왓스나 ... 在中國日本居留民保護에 任하는 陸戰隊를 增派하야 日本內地에서 海軍兵力의 派遣으로서 第三艦隊의 警備兵力을 增大하는 手段을 講하게되는것이다

에代表의資格問題로 聯盟一波瀾未免

否認되면國際裁判所에提訴

【쥬네브二十一日發同盟】聯盟代表資格審査特別委員會는 二十一日午前開會 聯盟總會에出席할 各國代表의資格을 審査하기로되엿는데 에디오피아代表의 資格問題를 中心으로 議事는 벌서부터 重大波瀾을 豫想하게되엿다 審査委員會의 探擇方法論으로는

一、에디오피아代表의資格을 承認하는 것이나

一、委員會의 意見이 一致되지못한 境遇에는 多數派의 意見과 少數派의 意見을 綜合하야 資格의 決定을 總會의 議決에 一任할 것이나

一、에디오피아代表의 資格을 否認하는 것이나

라는 세갈래가 考慮되는데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代表가 聯盟總會에 出席하는 限 非協力政策을 抛棄치안는다고 聲明하는 事實에 鑑하야 에디오피아資格否認은 條件으로 承認하기는 希望이업는데 結局에디오피아代表資格에 對하야 否認하지안을가 하는 觀測이 强하며 代表資格을 喪失할 境遇 에디오피아는 即時「資格否認은 에디오피아 政府不承認을 意味하는것이라」고하야 常設國際裁判所에 提訴할터이다 審査員八名中 英佛 蘇聯 西班牙等은 候補로 殘餘四委員은 아직 未定인데 委員의 人選 如何에依하야는 意外의 判定도 豫斷하기難함으로 總會를압두고 주네브外交界의 關心은 에디오피아代表資格問題에 集中되여잇다

宇垣前總督夫人逝去

【東京電話同盟】前朝鮮總督宇垣一成氏夫人貞子氏(四二)는 十八日 腦溢血로 卒倒 四谷內藤町自邸에서 慶應大學의 西野博士의 手當을受하고 加療中이든바 二十日午後九時逝去하엿는데 葬禮式은 二十五日에 擧行한다고한다

總督府遞信局長宇垣郞의 兄嫂貞子夫人은 昨二十日午後九時 逝去하엿다는 正式通知가왓슴으로 總督府에서는 本府及遞信、鐵道、專賣各局長 官房課長一同으로 東京市四谷區內藤町一之一의 宇垣邸에 弔電을 發하는同時에 花輪一對를 供進하야 弔意를 表하엿다

反『볼쉐비즘』을爲한 日獨共同戰線企圖

實現되면、獨逸은滿洲國承認

【伯林十九日發同盟】歸國中인東京駐箚獨逸大使폰 데ㄹ 센氏는 來十月十三日 伯林發 東京에向하야 歸任할豫定인데 伯林外交界에서는 同大使의 歸任을 機會로日獨提携에依하야 世界反볼쉐비즘의 共同戰線을 指導하려는 企圖가 具體化하리라는 憶測이자 盛傳한다 大使는 過般開催된 나치스黨大會에出席하야 히틀러 總統의 볼쉐비즘打倒의演說을 傾聽하는 同時에 政府首腦部及駐英大使리벤트롭伯 駐伊大使핫셀氏 蘇駐大使슈렌브르그伯等과累次會談을 遂한結果 日獨兩國의對볼쉐비즘强化에對하야 兩國의重大指令을受한것이라고 解釋된다 日獨提携의 形式에對하여는 正式으로同盟이라든가 軍事協約等이成立하리라고는 信하지안으나 獨逸에서는 日獨共同下에 世界反볼쉐비즘共同戰線의結成을企圖하고 英米伊도此를 支持하리라고 期待한다하며 獨逸政府部內에서도 리벤트롭氏가 이計畫의가장熱心한 支持者로 萬若 日本이 獨逸의 意向에贊成한다고 하면獨逸은 滿洲國의 正式承認도考慮한다고 傳한다 데ㄹ 센大使의 歸任後行動은 바야흐로 外交界의 注目의的이 되여잇다

八面錄

◇ 脫退안한會員의 出席을拒否하되 總會處分도 正式으로못하는것이 國際聯盟。

◇「에디오피아」를 꾸짓는 伊太利의 팔뚝임어다니는것이 歐洲列國으로서는 有利하다는말。

◇ 正義보다 利害를 앞세움은 匹夫匹婦라도 못그러하는일。

◇ 그래도 歐洲平和를爲하야는 廉恥를不顧하게되얏스니、지금의平和가 엇더한것인을 짐작할노릇。

◇ 西班牙政府軍이「아르카－싸르」攻略을爆破하는통에 婦女一千二百名이 慘死하얏다고。

◇ 오는날 무슨 善政을할는지는모르나 이러고서도 國利民福을마를 政府라할가。

蘇聯의婦人團體

西國에食料品發送

【莫斯科十九日發同盟】蘇聯의婦人團體는 動亂의西班牙婦女子를 救恤하기爲하야 義捐金을 募集하고잇는데 相當한金額에 達하엿슴으로 此로食料品을 購入하야 十九日 黑海오데사港으로부터 汽船으로 버터五百噸 砂糖三百噸 各種食料品凡二千噸을 西班牙로 發送하엿다

싸베트政權樹立

西首都極左分子要求

【巴里二十日發同盟】西班牙叛軍의進擊을 압두고 마드리드市는 戰時狀態를現出하엿다한다 市內 極左分子는 二十日 外相에對하야 싸베트政權樹立을 要求하는 最後的通牒을 發하엿다한다 通牒內容으로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一、內閣制度를 廢止하고 政權을「公衆聯盟委員會」로 改組할 것

一、一切의銀行을 社會化할 것

一、私有財產을 沒收할 것

一、徵制兵制度를 施行 十七歲로부터 四十五歲까지의 男子에 兵役義務를 課할 것

英飛行家블氏重傷

【리버풀十九日發同盟】英國飛行家블랙氏는 飛行競走에 參加하야 十九日리버풀 飛行場으로부터 愛機 미스리버풀機를 操縱하야 出發하려든刹那 亦是滑走中이든英國空軍機와 衝突하야 瀕死의重傷을 負하엿다 同氏는 一九三四年英濠飛行競走의 優勝者로 今年三十七歲 英國有數의 名飛行家이다

人事・集會

◆三橋警務局長家族 二十一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 東京으로부터入京

◆金允經氏(仁川永化普通學校長) 二十日午前十一時別世

◆劉和文氏(北靑廣業家)日前入京 本町二丁目丸美屋旅館에 投宿

白頭山探險記

무서운自然이여 네이름天池로다

(31) 徐椿

八月十二日午前十一時半、白頭山絶頂에 到達하야 天池를 나려다 보며、四周의 輪山을 바라보니 다만 사람을 威壓하는듯 드러삽키려는듯한 極度의 恐怖感과 無窮永劫에 對한 無限한 感懷가 가슴에 찰뿐이오、言語道斷하야 다시 表할 말이 업다。억지로 이것을 말로 表해 본다면

「아아、저 浩漫한 검푸른 물!」

「아아、저 칼로 까가 드리운듯한 千仞斷崖!」

「아아、저 方向업시 부는 바람의 亂雜한 移動을 따라서 이리왓다、저리갓다하면서 絶壁을 싸고 몰고、물을 덥허몰고 잇는 식컴한 구름의 떼!」

「아아、저 狂瀾怒濤의 아우녀서 물보래 칠때마다 내여뿜는 흰 안개!」

「아아、살을 베여 내는듯한 이 추위!」

의 黑水、斷崖、黑雲、白霧、寒氣의 五音를 要素로한 瞬時不休의 無窮活動의 變化相이 即、天池요、그周圍三十里를 圍繞한 輪山의 光景이라고 할수밧게 업다。

故로 絶頂에 到達하야 千尺斷崖아래로 天池를 俯瞰하며、此를 圍繞하야 聳立한 參差不齊의 諸輪山을 眺望하는 者의 發할수 잇는 말은 오직

「아아、저 물!」

「아아、저 千仞斷崖!」

「아아、저 黑雲의 奔走한 모양!」

「아아、저 물이 뿜는 흰 안개!」

「아아、이 至毒한 추위!」

의 다섯 마디 밧게 다시 업고、그밧게는 오직 至毒한 恐怖와 無限한 感懷를 느낄뿐이다。

◀白頭山天池

하늘 바로 밋헤
깍가 물린 絶壁
구름 속 안개 속에
永劫의 검푸른 물
아아、무시무시 할손
네 이름 天池로다。

아아、變化도 無窮하시
네 이름 天池로다。
하늘닷는 물ㅅ기둥을
내여 솟는 때닷자최

검은 구름 흰 구름
몰니어 찌저질제
굴룰이는 검푸른 물이
올녀 뿜는 흰 안개여

방울방울 千萬年에
모아 이룬 偉大한 곳
아아、大自然의 힘이여
네 이름 天池로다。

다시 이것을 敍述的으로 그려 본다면 우리가 서 잇는 地點에서 千餘尺의 絶壁아래로 마치 하늘을 꺼구로 노흔듯、노흔듯、바다를 옴겨 노흔듯、浩浩蕩蕩한 黑靑色의 天池水面이 나려다 보이는데、모진 바람에 견지지 못하는 탓인가? 怒濤狂瀾이 暫時도 쉬일새 업시 부박처 이러나고、이에 따라서 銀가루를 뿌리는듯한 물보래가 이러나면서 흰 안개를 連해 내뿜고 잇고、天池의 周圍를 圍繞한 參差不齊의 大小輪山은 이것을 單純히 山이라고만 이름해 가지고는 그實感을 表할수가 업고、달리 形容해 말해야 될터인데、暫間 이것을 서뿌루나마 形容해 본다면 마치 屛巖絶壁、千仞斷崖를 橫幅으로한 十數幅의 偉大한 屛風으로서 天池의 周圍二十餘里를 圍繞한것에 譬할것인데、시컴한 구름의 떼는 方向업시 함부로 부는 모진바람의 風勢를 따라서 이리왓다 저리갓다하면서 絶壁을 싸고 몰고 天池를 덥혀 도는 樣이 마치 무엇이나 잡어 삼킬것을 奔走히 차저 단니는 怪物가티 무서워 보인다。

또한 가튼 千仞斷崖라도 저 金剛山의 그것은 흰 石壁으로 되엿는데 이것은 검푸른 土壁으로 된데가 만허 보인다。그런데 무서워 보이기로 말하면 이 검푸른 土壁으로 된 斷崖가 石壁의 그것보다 幾百倍나 더 무서워 보이는것이다。

浩蕩한 天池의 水面에서는 怒濤狂瀾이 안개를 吐하며、하늘을 돌로 [illegible]한 輪山의 千仞絶壁의 [illegible]에서는 시컴한 구름의 떼가 사람의 魂을 빼앗을 態度로 奔走히 왓다、갓다、덥혓다、씨웟다하는것을 一瞬之下에 바라보면 마치 天池가 숨을 드려쉬어서 사람을 끄러드리는듯한 恐怖戰慄의 感을 禁할수가 업다。今時로 끌니워 드려가서 저 뛰노는 물과 함께 소용도리를 치지 안나? 하는듯이 무섭다。게다가 잇다금 바람이 天池를 衝하야 불때면 더구나 몸소름이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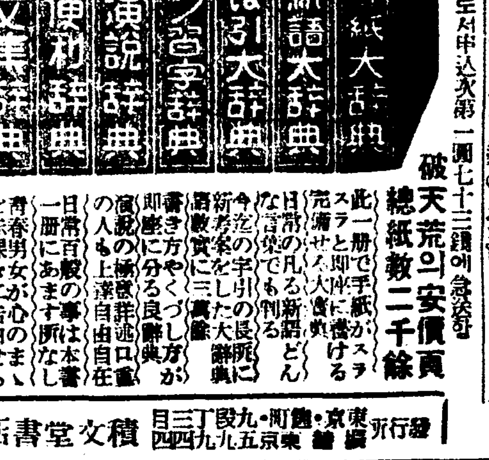
이러케 무시무시한 곳이라、天池로 向한 絶壁의 가장자리로부터 三四間이나 드려서서 행여 끌니워 드려갈까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두발을 꽉 집고、몸을 뒤로 끌면서 腹板으로 버치고 마치 무서운 怪物을 對하는듯이 暫間 쳐다보다가는 곳 눈을 감어 버리거나 머리를 돌리게 된다。

好奇心에 끌려서는 바라보고、恐怖戰慄의 感에 놀니어서는 머리를 돌니고 하야 이것을 數어시 反復하고 잇는것이 即、天池求景이다。天池를 보지 못한 사람은 저런 무서운것이 어떠케 생긴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그대신 一次 天池를 본 사람은 보든 當時의 光景을 回憶만해도 치가 몸을 떨님을 禁할수가 업는것이다。至毒히 치운 颱風의 猛襲을 바드면서 그무서운 光景을 보든 印象은 一生을 두고 腦裏에서 사라지지 못할것이다。

(寫眞은白頭山天池의一部)

淋疾 蔘茸五淋錠
定價 一圓 三圓七十錢
發賣元 京城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研究所 振替京城一三四六六番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勤務可 每月收入多大
昭和通信社

大景品付七冊辭典大亂賣
七冊에單壹圓卅錢에投賣
左의大辭典 七冊殘本處分 七冊同時에注文者에限單只一圓三十錢에投賣 送料廿五錢


破天荒의安價 總紙數二千餘頁
大景品 朝鮮日報愛讀者라 明記하고「辭典七冊組」注文者에限 一個식無代進呈
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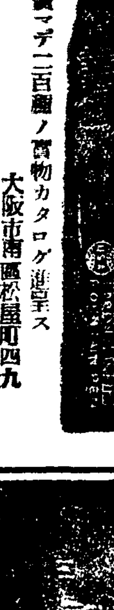
發行所 東京・神田・九段三丁目 積文堂書店

大阪著名問屋案內

洋服 作業服・コール天・學生服
羅紗綿布既製品卸 西村兄弟商店
大阪市東區森之宮東之町四二二
店何捺印限り見本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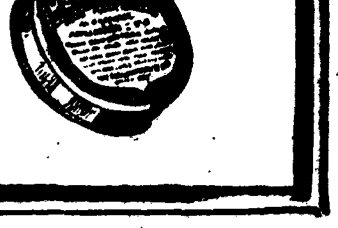
玩具仕入은一次當店에
百般教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豐富
大阪玩具卸問屋協會 會員 角木商店
大阪市東區住吉町五十五 電話東一五八二番 振替大阪五九六九〇
型錄送呈要二錢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綾、朱子、人絹新規小賣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南局第二三三函
產津村合資會社 電南二四八九 振替大一三八三番
商報送呈 見本은要五十錢(切手)

五十錢賣ヨリ八円賣マデ二百種ノ賣物カタログ進呈ス

ナイン萬年筆 ナインシャープペンシル
製造本舖 古村製作所 大阪市南區松屋町四九 電話東七三四二 振替大阪五四七七八番

洋服 オーバー 背廣
商報進呈

株式會社 圓山商店
大阪市東區島町一丁目 振替大阪五七四二九 電話東三五○四


9-3-A

返信電報는即席에서 配達夫에게委託

電報칠때에는郵票대신에現金을添付

便利하게 利用케된 電報規則의改正

이십일일부터 총독부령(府令)제십구호로써 전보규측이 개정되여오는 시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그개정된 요점을보면

A、종래에는 전보를칠때에 전보지에 전보료금에 상당한 우표를 부처서 접수시키게되든것을 전보와가티 현금을 첨부하야 접수할수잇게 되엿다 그래서 공중(公衆)은 우표를 사서 전보지에 부치는 번잡을 덜게되엿다。

B、종래에는 반신료전납증서(返信料前納證書) 수통(通)으로써 일통의 전보료금에 체대할수 업는것을 수통의 반신료전납증서로써 일통의 전보를 칠수가잇게되엿다。

C、전보의 배달을받은 사람은 전보의 배달을 바든시간으로부터 오분이내에 그배달인에게 의탁하야 전보를 발송할수가 잇게되엿다

D、전신위체(電信爲替)에 대한 여러가지의 취급청구에 대해서는 규정의 긔간을 지나서 청구하는경우라도 전신위체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업는한도에는 그것을 응하기로되엿다

E、발신인(發信人)이 발송한전보에 관하야 심문(審問)을청구한경우에 전신관서(電信官署)의 과실로말미암은 심문한것인 때에는 그심문및회답에 드는료금은 내지안트라도 조케되엿다

이상의 여러가지 규정을 개정하야 일반리용자에게 종래보다 터「서비스」하기로된것이라한다

新府議十五名 今日開票로決定

投票總數一萬二百四十六票

喜悲交交한選擧場

경성부회의원십오명중선 선거의 개표는 이십일일오전 여덜시부터 중부선거분회장인 남대문소학교에서 동부(東部)서부(西部) 영등포(永登浦)중부(中部)의 순서로 시작하엿는데 총투표수는 일만이백사십륙명으로 유권자수의 이만이천이백십사명에 대하야 약팔할가량이 기권하엿다 오후세시십오분에 개표는 끗내는데 그결과는 당선된 사람은 다음과갓다

◇中部(定員六人)(投票數八五五九內無效六〇)
▲一五〇六票 韓相億
▲一二三一票 姜永皓
▲一〇六五票 伊藤東作
▲一〇〇一票 山田眞一
▲九一七票 國友尙謙
▲八五〇票 藤村忠助

◇東部(定員三人)(投票數六九四 內無效二)
▲二二五票 李昌業
▲一九七票 朴元信
▲一八五票 不破三平

◇西部(定員三人)(投票數四九三 內無效五)
▲一二一票 車相鎬
▲八八票 康容杓
▲七四票 長谷川和三郎

◇永登浦(定員三人)(投票數五〇〇 內無效二)
▲一五五票 金泰濂
▲一〇七票 木下榮
▲九五票 鈴木文助

(사진은 개표회장)

戀愛逃避中에 未練의情痴凶行

慘殺된白骨女의身元判明

犯人은北滿에서逮捕

【安東縣】십구일아츰 안동현대화교통(大和橋通)오정목 판정일상(坂井鍛三)의집에서 청경하노라고 아래층조방의「다다미」를 들첫더니 마루에수상한구멍 시체가흙것이 발견되엿다 이급보를받은 안동서(安東署)에서는 현장에급행하야 부근을파헤치고 엄밀히조사한결과 과연 검정구두를신은 양장한 녀자의 시체가 절반이나 백골이되엿드

을 한결과 피해자는 함흥(咸興)출생의 "메리-"(二一)라고 부르는 녀자로 그는 지난소화구년부터 경성에서 서로알게된 신의주초음정(新義州初音町)김성화(金成華)(三〇)와 함께 안동현으로와서 한때는삼번통(三番通)륙정목 "카페-금수(錦水)"의 녀급노릇을하며 전긔김성화와 사랑의단꿈에 잠겨잇섯스나 우연한기회에 남자에게는 평북의주(義州)에 뚜렷한 본처가잇는것을알자 그는남자에게 리별하기를 청하엿스나 아직도미련이남어잇는 김성화는 이것을듯지안허 두사람사이에는 풍파가자저젓다 이리하든중 김은차라리 이녀자를 죽여버리기를 결심하고 당시 공사중에잇든전긔 판정의집건축장에「메리-」를 끄어내여 죽여버리고사체는 전긔와가티 그곳에파뭇은것으로 판명되엿다 그리하여 안동서에서는 그범인을 붓잡고저 활동중 이십일밤 룡강(龍江)경찰서로부터 범인김성화를 그날 오후다섯시에 그곳서 붓잡엇다는 보고를 밧엇다

娼妓도못될八字 父女가警察에

民籍謄本僞造事實이綻露되어

妙齡"二先"이의哀話

아비의罪? 딸의罪?

대구부덕산정(大邱府德山町)이백륙십이번지 김도지(金道之)(五〇)와 그의둘재딸 이선(二先)(一七)이는 수일전부터 공문서위조(公文書僞造)행사(行使)횡령(橫領)등의죄명으로 본정서에서 취조받고잇는데 이사건의리면에는 눈물겨운 인정애화가숨어잇다

그날그날을곤란하게 지내오면서 간신히 목숨만 어어가든 김도지는 오십이라는로년을 마지하면서 그일조차 정직곳(세월분)이들에게 빼앗기게되자 그들의생활은 전혀 의지할곳이업게되여 어린아이들은 비인밥통만 드려다보고 아침저녁을굼고 잇섯다한다 이러한 간장을어이는듯한 참경을 눈압페노코 그는 엇지할줄을모르고 생각다못하야 최후의 수단으로 둘재딸 이선이를 창기로하야 팔기로하야 딸도 매일가티 눈압헤 자긔집의 생활 곤난이라는 비참한 사실을 여지업시 보고잇든 현편이엿스므로 스스로히 자긔의 몸을 희생하기로하고 시내 서사헌정(西四軒町)고봉루(高鳳樓)에 전차금사백원을 받고 창기생활을 시작하엿다한다 그러나 그의 효성이 하늘에 다다르지못하엿든지 그의 나이가 만십칠세에 이르지못하엿스므로 붓허가가될것을 우려하고 이선이는 사망한듯이 사망신고로 제출하여서 민적등본을 위조하야 맛딸의 일홈으로 허가원을 본정서에 제출하엿든바 그서에서 대구서(大邱署)에 조회하여본결과 전긔와가튼 사실이 발각되엿다 한다 이와가티 생활난에 지발핀 그는눈물을흘리면서 이것이 아버지되는 나의죄입니까 딸의죄입니까하고 긔자에게 한탄과긴한숨을 쉬고 잇섯다

嚴舜奉上告審

檢事는上告棄却意見

소화팔년십월 중순상해(上海)에서 당시주중일본대사이든 유길(有吉)대사를 암살하려 폭탄을 던지려고 또 소화십년에 상해조선인거류민회장 리용로(李容魯)씨를 권총으로 쏘아 죽엿다는 혐의로 일이심에서모다 사형판결을받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중인 무정부주의자 엄순봉(嚴舜奉)(三二)에대한 상고심 공판은 이십일일 오전열시 고등법원에서 히구(樋口)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로부터 상고기각의견진술이잇슨다음 언도긔일은 추후에정하기로하고 곳폐정하엿다

明日!防空演習

基本演習、綜合演習、家庭防護

京城府防護團總動員

경성부방호단(京城府防護團)에서는 이십이일 방공연습(防空演習)을 실시하게되엿는데 평양(平壤)에서 경성으로 습래한중폭격긔(重爆擊機)수대가 투하하는소이탄(燒夷彈)과독와사탄(毒瓦斯彈)에대하야 각방호구단원이 총동원하야 적긔격퇴와방독구호와 재해방지등에 필사의 대활동을 실연하는것이다 시내 각경찰서 관내에따라 네곳의 방호구(防護區)로나누어 아침부터 시작하야 예비연습(豫備演習)과 가정방호(家庭防護)연습과 종합(綜合)연습이잇겟는데그각방호구 연습의시각과 위치는다음과갓다

本町防護區
午前一時부터 京城郵便局前廣場 綜合演習

東大門防護區
午前八時부터 東大門署後庭 基本演習
午後一時부터 東廟派出所前 李倧町 經學院入口除ㅅ停留所前 家庭防護演習
午後三時부터 鍾路四丁目交叉點 綜合演習

西大門防護區
午後一時부터 西大門小學校 漢洞普通學校 加明普通學校 家庭防護演習
午後三時부터 西大門內十字路 綜合演習

鍾路防護區
午前十時부터 各派出所十五個所 基本演習
午後一時부터 公平町民與旅館前 年會館下巴里洋服店 家庭防護演習
午後三時부터 光化門十字路 綜合演習

龍山防護區
午前中 各町마다 家庭防護演習
午後三時부터 第二高女學校校庭 綜合演習

府民各位의注意

一、飛行機로부터 燒夷彈及瓦斯彈의投下信號는左와如하다

燒夷彈－紙袋(小麥粉)赤綠을단다

一、時性瓦斯彈－右同白綠을단다

一、投下爆彈의色別
赤色旗 燒夷彈
白色旗 火災狀況
黃色旗 一時性瓦斯狀況
赤테ー프 持久性瓦斯撒布狀況

一、飛行機의擲彈投下代用으로投下하는紙袋는 空中에서破裂될 豫定이나 或時破裂치안코落下하더래도 危險치안타

一、今回의演習에는燈火管制(消燈管制)는 行하지안는다

◇注意事項

그리고 소이란 독와사등은 발연통(發煙筒)을 사용하나마 뚝발할 념려가 잇스니 심지미를 조심하여야 하며 독와사는 일시적성질의것이니 눈에 들어가도 해가업다 눈이 압흘때는 씨츠면고만이다 비행긔에서 의제(擬製)폭탄을 투하하니 주의하여야된다。

大東民友會創立

二十日市內侍天教堂서

綱領宣言과役員決定

시내 중학정(中學町)일번지에잇는 민족주의로부터 전향한 사람을 중심으로한 대동민우회 창립위원회(大東民友會創立委員會)에서는 이십일 오후 두시반부터 시내 견지정(堅志町)시천교당(侍天教堂)에서 회원삼십여명과 방청자사십여명 참집하에 그창립총회를 열엇다 리동락(李東洛)씨의 사회아래 회의가 진행되여 선언강령과 설명을 발표하고 「타도공산주의」「타도민족자결주의」라 도인민전선의긔를로간노를 맹들어 비라를 산포하엿스며 다음과가튼 역원을 선거하고 오후 다섯시경에 폐회하엿다

▲理事長 安浚
理事 高德煥 金演植 李東洛 柳公三 金壽山 崔瑞浩 李承元 朱琰熙 車載貞 曺秉煥 朱鍊 郭璇
監事長 朴享南
監事 吳成煥 李鍾洼 李華寅

京軌衝突事件(公判日決定)

지난륙월십구일오후에 경성사범학교 상과(商科)생도 임백칠십명을 태워가지고 독섬을 향하야가다가 룡두(龍頭)역못미처서 독섬쪽으로부터 오든회물차와 정면충돌하야 임시에사상자오십여명을내인 경성궤도차사건의 담당책임자 리달우(李達雨)김운선(金雲仙)함양준(咸陽俊)등네명에관한 업무상과실치사상(業務上過失致死傷)사건제일회공판은 오는칠일 경성지방법원형사부단독부에서 염견(鹽見)판사심리 주견(酒見)검사관여미레 열리기로되엿다

取調밧든竊盜가 意外强盜로判明

殊勳은犯人手配日記

이십일오후한시삼십분쯤에 서대문서원이 부내 중림정(中林町)이백칠십칠번지 한양주점(漢陽酒店)에서 거동이 수상한 청년한명을 인치하여다가 취조한결과 이자는 부내 인의정(仁義町)칠번지에사는 김금순(金今順)一名永植(二〇)으로 구월중순에 부내 종로(鍾路)삼정목 일백사십팔번지 영락(永樂)상점에서 그곳에잇는 녀급 최경화(崔環花)의 시계를 훔쳐가지고 도망한것을 자백하엿다 그런데 동서에서 수배일지(手配日誌)로 조사한결과 이자는의외에도 작년삼월 청운정(淸雲町)창의문(彰義門가는고개)에서 다옥정(茶屋町)일백이십사번지에사는 황국빈(黃國彬)(女)(二七)을 단도로위협하고금비녀를강탈하여가지고 도망하야 시내각서에서 찻든이물이라고한다

舞臺는派出所 拾得物詐欺劇

追擊하야犯人逐逮捕

파출소를 무대로 사긔횡령한 대담한 사나히가잇다。 십구일밤 아홉시쯤되여 시내 신공덕정(新孔德町)일백삼십번지 김정환(金正煥)(二〇)이가 태평통(太平通)파출소에 정동정(貞洞町)사십삼번지 원미창양복점(源美昌洋服店)직공 황종태(黃鍾泰)(二〇)이를 다리고와서 이사람이 내가일흔돈 오십전을 길에서어더가지고 돌려주지안는다고함으로 순사는그말을밋고 그돈을돌려주엿든바 얼마후에 황금정(黃金町)일정목 박경원(朴璟瑗)(二七)이가 전긔파출소에와서 오십전자리은화두개를 대평통(太平通)이정목십칠번지 안길에서일허버리엿다고 신고하여왓다한다 이에 그순사는 김정환이라는자가 감쪽가티 자긔를속이고 돈을사기해간것을알고 황금정(黃金町)일정목에서 그를추격하야 서소문정(西小門町)입구에서 체포하야 본서에 인치하엿다한다 김정환은 전긔 황종태이가 길에서 돈을줍는것을보고 그를위하야내돈이니 달나고 하엿스나 종래듯지안흠으로 전기와가튼수단으로 빼아서가지고「마코-」한갑을사서 담배맛을 보다가그만 그와가티 체포된것이라한다 여죄가 만흘터이라하야 계속취조중이다。

運動競技

藥專中等庭球에 普成李黃組優勝

京城藥學專門學校 校友會主催 第六回 全朝鮮中等學校 庭球選手權大會는 十九、二十兩日間 京城運動場「코-트」에서 七十二組가參加한가운데 열렷는바 中等庭球界의 常勝軍 普成高普 李瓊泰黃秉坤組가 決勝戰에서 商道 尹錫彭、上谷組를 五對三으로물리치고優勝權을獲得하엿다

◇準決勝戰
○成普(李瓊泰 黃秉坤)4…1 高普(尹鳳煥 張在濤)×
○商道(尹錫彭 上谷)5…3 善隣(金炳斗 宋在百)×

◇決勝戰
○成普(李瓊泰 黃秉坤)5…3 商道(尹錫彭 上谷)×

全日本陸上豫選續報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 朝鮮豫選會는 二十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參加選手로 보아 閑寂한大會엿스나 培材高普金裕澤君은 百米에十秒七(全日本中等타이記錄、朝鮮中等新記錄)을 作成하야 朝鮮記錄의十秒八(矢野榮君의保持한)에肉迫한것은 不振狀態에잇는 朝鮮短距離界를爲하야 一大收穫이다 그리고 決勝記錄은 다음과갓다

【四百米】1韓銘鎬(아俱)五七秒六
【千五百米】1朝倉(遞信)四分二七秒二
【萬米】1柳長春(遞信)三二分二三秒八 2許貴淳(京城)三二九分三六秒二 3金圭龍(京城)
【五千米】1柳長春(遞信)一六分八秒四 2崔俊根(鐵道)一六分一〇秒六 3吳東祐(鐵道) 4李雨燮(遞信)
【三千米障碍】1金斗仁(아俱)一一分三三秒F
【마라손】1邊天幸(遞信)二時間四三分三三秒F
【五種競技】1腰內(鐵道)二七一三點(朝鮮新記錄)
【棒高跳】1富田(鐵道)三米八〇 2岩本(遞信)三米三〇
【投槍】1李東寶(京城)四九米七八
【投砲丸】1松崎(遞信)一一米二六 2荻野(遞信)一一米一二 3金鋼俊(鐵道)一〇米一七
【走幅跳】1福田(鐵道)六米九〇 2韓銘鎬(遞信)六米三〇 3久原(鐵道)六米二六 4金應錫(延專)六米一九
【投圓盤】1金鋼俊(鐵道)三三米六八四 2朴貴李(普專)三三米一八 3荻野(遞信)三四米一八 4松崎(遞信)三三米一三

大豫中等蹴球

京城帝大豫科主催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第二日은 二十日午前十時부터 淸凉町大豫球場에서 열리엿는바 準決勝戰에서는 普成高普對徽文高普、晉州農業對中央高普가 對戰케되어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普成高普와晉州農校가 勝捷하야決勝戰에서 對時하게되엿다

◇準決勝戰

普成2 徽文1

【前1…0、後0…1、延1…0】

普成高普對徽文高普準決勝戰은二十日午後一時부터 淸凉町大豫蹴球場에서 李齊九(主)、鮮于煥、金榮燦(線)三氏審判下에 徽文先蹴으로 開始된바 兩軍實力伯仲하야延長戰에 드러가結局二對一로 普成軍이 勝捷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普成】
[illegible]

【徽文】
[illegible]

晉農3 中央0

【前1…0、後2…0】

晉州農業對中央高普戰은 同日午後三時二十分부터 同場所에서 朴義鉉(主)辛基泰、金相五(線)三氏審判아래 中央先蹴으로 開戰된바 結局三對零으로 晉州農業軍이 勝捷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中央】
[illegible]

【晉農】
[illegible]

神宮軟式庭球 京畿道代表決定

朝鮮神宮競技大會軟式庭球京畿道豫選會는 二十日午前十時半부터 南大門通殖銀「코-트」에서 開催되엿는바 京東의 金鎭玉、李仁俊組와 成炳文、朴奇元組가 京畿代表權을 獲得하엿다

天氣予報

槪況 七五八粍의低氣壓은 滿洲中部에잇서 不連續線을伴하야 東進하고잇다。 또 九州、四國의近海에도 小低氣壓이엇서 不連續線을伴하고잇다。 七六八粍의 高氣壓은 北海道로부터 日本海에 퍼지고잇다。 滿洲는 雨氣가잇고 朝鮮은흐려잇는데 南東岸은 개이고 日本內地는 雨氣가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흐렷다가 小雨가잇을것갓고 明日은 흐렷다개엿다할것이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三
同 最低 一一度一
今朝最低 一五度
今日正午 二四度一

新築落成 無料診察 校洞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病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五二

第一次 東亞配給※連鎖店發表

敬啓者 今般弊連鎖店部의 地方連鎖店募集發表에 對하야 朝鮮各地方은 勿論 멀니滿洲中國等地로부터 絶大熱烈한聲援支持를拜蒙하야 참으로 感謝에넘치는바입니다 오늘날 經濟界의 複雜多岐는 드듸여統制聯結의必然的過程을 밟어 單獨商店의經營難과 無資本小資本者의 成巧의進路는 果然暗澹 그것이아니면 아닐것이외다 여기에잇서 弊店獨特한 新連鎖店制度는 現代商業界에 劃期的意義를가진바로 最短期日의 申込期限입에 不拘하고 江湖諸賢의 想像밧게 絶讚과贊同은 오로지時代의推移와 本事業의 前途發展을 如實히 말함인줄確信하오며 左記入選發表에 際하야 玆에感謝의微意를 謹表하나이다 伏白

昭和十一年九月二十日

東亞配給本店連鎖店部

設定地	城津邑 羅津邑 明川邑 定平邑 咸興府 新興面 永興邑 端川邑 洪原邑 元山府 高原邑 北靑邑 宣川邑 孟中里 熙川面 雩時面 新義州 龍川面 定州邑 肅川面 价川邑 鎭南浦 平壤府 海州邑 寶山面 新幕 長淵面 馬山面 延安邑 金郊驛前 安城邑 水原邑 郡內面 安養里 嶺斤面 龍門面 開城府 平澤里 良道面 長箭里 伊川面 楊口面
區域	城津郡 慶興郡 明川郡 定平郡 咸州郡 新興郡 永興郡 端川郡 洪原郡 安邊郡 高原郡 北靑郡 宣川郡 博川郡 熙川郡 碧潼郡 義州郡 龍川郡 定州郡 平原郡 价川郡 龍岡郡 大同郡 海州郡 平山郡 瑞興郡 長淵郡 甕津郡 延白郡 金川郡 安城郡 水原郡 長端郡 始興郡 漣川郡 楊平郡 開豊郡 振威郡 江華郡 高城郡 伊川郡 楊口郡
氏名	金 李 沈 安 林 朴 金 金 李 金 金 李 劉 金 姜 鄭 朴 金 金 李 崔 吳 金 明 權 姜 尹 金 車 張 洪 李 金 朴 李 文 洪 全 玄 尹 李
	希 昌 鴻 成 烱 完 德 浩 錫 明 啓 日 昌 淇 衡 熙 鳳 天 光 相 鳳 千 昌 培 梓 炳 永 濟 角 德 鎬 大 孝 錫 龍 星 萬 錫 鳳
	洙 文 淑 洽 華 集 洙 允 性 夏 根 彬 彪 廣 乙 龍 濟 俊 信 奎 潤 橫 安 澤 汝 煥 植 馨 九 源 篤 醫 杓 萬 鎭 元 永 珩 杓 南 德 偉 濤
設定地	鐵原邑 福溪 平昌面 堤川邑 永同邑 淸州邑 忠州邑 槐山邑 長項里 鳥致院邑 禮山邑 天安邑 大川面 公州邑 江景邑 溫陽面 大田府 扶餘邑 裡里邑 全州府 南原邑 群山府 淳昌邑 筏橋面 光州府 羅州邑 木浦府 潭陽邑 和順邑 榮州邑 醴泉邑 金泉邑 浦項邑 星州邑 義城邑 金海邑 宜寧邑 梁山邑 馬山府 統營邑 河東邑 日本租界 十間房 間島省
區域	鐵原郡 平康郡 平昌郡 堤川郡 永同郡 淸州郡 忠州郡 槐山郡 舒川郡 燕岐郡 禮山郡 天安郡 保寧郡 公州郡 論山郡 牙山郡 大德郡 扶餘郡 益山郡 完州郡 南原郡 沃溝郡 淳昌郡 寶城郡 光山郡 羅州郡 務安郡 潭陽郡 和順郡 榮州郡 醴泉郡 金泉郡 迎日郡 星州郡 義城郡 金海郡 宜寧郡 梁山郡 昌原郡 統營郡 河東郡 天津 奉天市 龍井村
氏名	李 崔 申 張 金 李 李 林 李 李 劉 安 徐 河 宋 趙 姜 徐 徐 金 金 金 田 金 金 池 朴 張 朴 權 金 朱 金 朴 申 李 李 金 姜 許 金 金
	秉 俊 鍾 文 大 鎭 學 商 應 恩 起 昌 正 昌 在 寬 敏 炳 弼 在 香 炳 昌 泳 成 鎔 商 營 昌 國 永 範 雲 文 容 學 興 殷 洲 三 衡 敏 東
	憲 鎬 烈 均 燮 鳳 奉 儀 淑 麟 璂 宰 默 順 德 泓 和 麟 文 秉 圖 煥 燧 辰 秀 南 大 淳 源 燧 基 集 淳 星 秀 晉 範 弘 春 錫 碩 順 聰 英

人絹 메리야스 化粧品 鐵器 雜貨

※東亞配給本店 連鎖店部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都筑ビル) 電話本局②二二五七二一 振替京城二三三一

조흔家庭工業
家庭의副業・社會의大事業
第一 이工業은누구나 可能하며 家庭婦女子의 副業으로도 適合함
第二 ...
大阪市港區 株式會社

肋膜炎
肋膜炎에 百發百中
五日分六圓 十日分十一圓
但地方은代金引換으로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振替京城一二一九九番

十周年記念奉仕 特撰分讓
軍犬 犬 獵犬
各種犬五拾餘頭
京城府元町三丁目二七八 上路終點車電元町
小林訓練所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時計 破天荒的廉賣
名照會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朝報案內
安平 多數在庫所用되시는분은 알려주십시오 南米倉町二〇五 三藥商會 電話②五七〇八

滿鑛開業廣告
本鑛은今回滿鑛을開始하오니 分鑛業을 ...
全南潭陽郡水北面 代表者 金炫圭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電光二二八番

恩給
醫專病院眼科指定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오케ー 一大傑作流行歌
채란새 李銀波
朴英鎬作詩
一(一九一四)一
型錄進呈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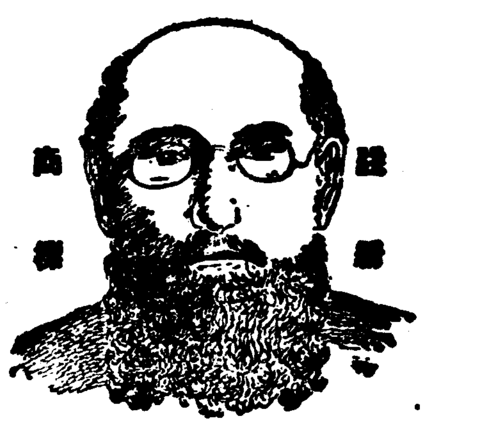
補缺生募集
大成醫學講習所
漢方洋方醫學講義 (速成科若干名)
出願期限十月十五日 (學則請求要二錢切手)
大田府本町二丁目九八

원료물감 染料藥品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電車停留場前)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支店長及代理店主任募集
月收百圓以上二百圓程度希望者來談할사
京城府元町二丁目
東滿商工株式會社
電話龍山④一四番 振替口座京城二二七七一番
(自筆履歷書要返信料三錢切手封入)

朝鮮料理
國一館
安養驛前
天高馬肥의가을! 하이킹과 野遊에는 初秋의名物 稻와밤의 名産地인 安養으로!!

新發賣品 朝鮮理想
얌마ー一動力用脫穀機
稻麥兼用
●●能率最大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아푸거나・쓰리지안코・爽快히잘듯는

대학목약

大學目藥

半島의 舞姬 崔承喜孃 曰

名眸의秘訣은大學目藥의愛用에잇읍니다、同胞諸孃이여彼此에아름다운强한눈을가집시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豊治氏
醫學博士 山中稔之氏
醫學博士 豐岡平通氏
推奬

流류線선型형容용器기

─스마─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몸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疾原因의거의全部가不潔과 榮養不良에잇읍니다、塵埃와媒煙과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나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눈은疲勞하야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좀아푸거나할때에곳治療를加하면 病이되지안코말것이라도、治療를加하지안코버려두는故로病이되는것이며 病이된뒤에는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于先大學洗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뿌半分의熱湯에녹여서、석힌뒤에까ㅣ제에적서여눈의안팍을輕하게몃번이고씻읍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點眼합니다、이것을每日三回꾸준히繼續하면、지금까지좀처럼낫지안튼眼疾도、斷然히快差해갑니다。

또、지금은눈이나뿌지안트라도、每日豫防해두면眼疾에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一二滴點眼하여두면됩니다、아츰엔눈곱이끼고해서第一不潔한때오니每朝點眼하여서면、언제나强하고고운눈을保有할수잇읍니다、特히婦人의 美眼法으로는 이것이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治療力이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效果와、專賣特許製劑우로벼올레진이라는紫外線防止藥까지도配劑하엿는故로、단하지로實證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읍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잇는분이쓰시면速히回復하고、健眼가진분이쓰시면强한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젊어지고、바다와山에서쓰시면、紫外線의害를받지안코맙니다。

아이들에겐 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곰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써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十才以下의小兒에게는小兒의눈에맞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읍니다。

硼酸보다나흔 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最新殺菌藥너이보르미친을 主藥을삼은强力한消毒力과治療力과點眼藥의 作用을돕는效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 完全消毒싸니레ー표를添附하야 大學目藥一瓶마다、添付하엿읍니다、不足하시거든洗眼藥만의賣品도잇읍니다。

定價

（使用便利）自動點眼케ー스付
一瓶入 五十錢
二瓶入（[illegible]）五十錢
特大形（瓶）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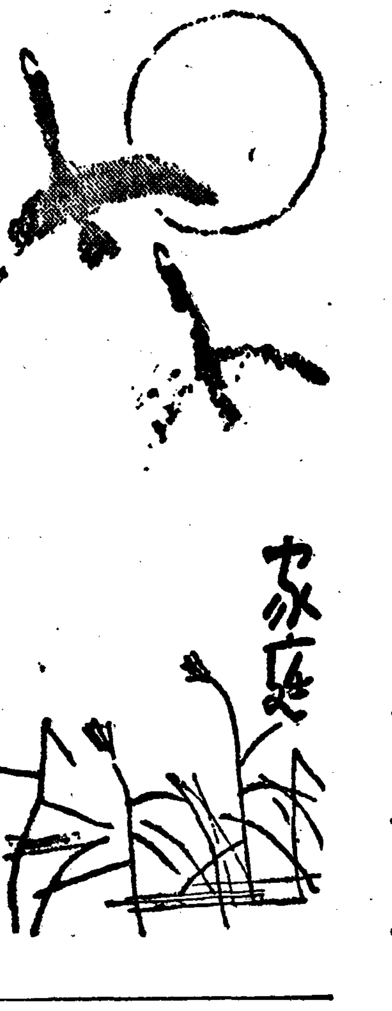
케ー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二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家庭



놀다가진력나면 어머니를차저

느진봄의 오후 아침부터 포근한 양지쪽에서 저먹대로들 놀고 잇든 어린애들도 질력이난 듯이 바레서 일하는 어머니가 그리워 차저갑니다 「우리애기 누가울엇니」「아-니」「그럼 나 보구시프든?」「응」「오- 귀여운우리강아지!」(이를테면 말슴이지요 그사람네들 웬 자식들을 보구 강아지라구 하겟서요) 속이 헐헐하거나 못맛당한일이 잇스면 먼저 어머니를 찻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머니의 키쓰의 포옹은 제일 어린마내둥이의 독점 여러 딸들은 어머니를 위로할새 업사 자기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려달라고 우려들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형적인 어머니는 딸들이 제각금 지꺼리는 말대구에 한참 숨쉴여가가업다 이것은 화란이란 나라의 농촌의 어머니와 그의애기들。

나무닙과가티 가을을타는머리털

거울아페서대머리만근심말고 미리부터예방을하자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입사귀는 의례히 지는 것이겟지오만은 어째서 사람의 머리털조차 우수수 빠저버리는지 야릇도 한 일입니다。 머리숫이 본래 만흔 분으로서는 혹 심상히 보아 넘기실는지도 모르되 대머리가 진 사람으로서는 빠지는 머리털로인하야 갓득이나 진정키 어려운 가을의 감회를 더한층 도드게 됩니다。 대체 가을과 머리털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까? 머리털로 하야금 온전히 가을을 지내게 할 도리는 업겟습니까? 아니 전혀 업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이 아래에 적은 방법을 참고삼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발(毛髮)을 연구하는 학자의 말슴으로 드르면 아모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로평균 사십개의 머리털은 빠지지 안할수 업다고 합니다。그 것이 소위 신진대사(新陳代謝)라는 것으로서 그만큼 빠지지 안는 것이 도리어 불건강의 현상인것입니다。그러나 사십개쯤 빠지는 것으로야 언제 빠지는지 알게나 됩니까? 가을에 빠지는 머리털은 그야말로 추풍락엽격이 아닙니까? 대개 여름동안에는 식욕이 댕기지 아니하 모발의 영양도 불충분하얏고도 땀과 함께 일종의 독소(毒素)가 만히 배설(排泄)되야 모근(毛根)이 상키엇습니다 그결과로 가을은 다른 철보담도 월등하게 만히 머리털의 신진대사를 요구하게 되는것입니다。

×

그런 신진대사야 비록좀 심해저도 문제가 업스나 병으로 되는수도 업지를안호니 그게 걱정입니다。그러니깐드루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그 두가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一)빠진 머리가 깁니까 짜릅니까? 길면 신진대사요 짜르면 병적입니다

(二)빠진 머리털끄테 하얀게 부릿습니까? 안부릿습니까? 부릿스면 신진대사요 안 부릿스면 병적입니다。

(三) 머리털 끄테 흰 것이 너무 만히 부릿서도지방이 너무 만히 분필(分泌)되는 까닭입니다。자조압콜로 씻는 것이 조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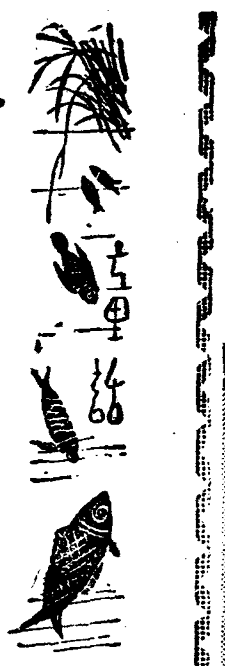
대개 병적으로는 빠지는 때는 두가지의 원인이 잇스니 하나는 피부에 병이 잇는 것이요 또하나는 습관적 정신작용(習慣的精神作用)입니다。병은 곳 의사에게진단을 바더야만 하지만은정신작용은 정신을 평온히 가지고 자극이 업는 약품을 바르는 것이 조흡니다。단 지 그것을 몹시 걱정하여서는 못 씁니다。걱정할사록 점점 더 만히 빠지게 되는수가 잇습니다。

×

또 비듬이 만허서도 머리가 빠지게 빠지게 됩니다 머리를 자주 감고 빗질을 자조 하야 비듬을 떨어야 합니다。비듬이란 무엇이냐고하니 신진대사로 인한 표피(表皮)의 허물에 지방이나 몬지가 한데 뭉처 되는 것입니다。누구나 업지 안흘것이로되 그대로 두어서는 위생상으로도 나쁘고 보기에도 더럽습니다。그런데비듬에도 두종류가 잇서서 하나는 힌비치요 하나는 누른비친니다。힌비츤은 상관이 업서도 누른비츤역시 딴 병의 관계인줄을 알아야합니다。

무지개

姜鎬文



소낙비가 우박가티 파파쏘다진후에 해님이 구름을버서나서 낫잠자든 복동이의귀에 수남이가 부르는소리가 어렴푸릿이 들렷습니다。놀래서잠을깨니 꿈갓기도하고 생시갓기도 햇습니다。낫잠꾸러기복동이는 눈을써비비고 이러나니까『복동아、복동아』하고 부르는소리가 또낫습니다。

복동이는 깁버하면서 밥비나가니 수남이엿습니다。

하얀모시적삼과 바지와 흰버선을 가라신고 싱글벙글우스면서 수남이는 복동이의 손을잡앗습니다。

『복동아 저거봐、무지개가 서잔엇니 붉고 푸른……아이참조아』

『우리 무지개타러가자』

『무지개를어더케타니』

『웨몰라、어제밤에 아버지가、말슴하시는데 무지개가서면 하날에서 잘 입뿌고 입뿐하날님의 딸님이 무지개를타고 나려온대』

『정말』

『그럼 흰옷을 가려입고 가야해』

수남이는 아주깁버하면서 가자고 복동이를재촉햇습니다。

『나려와서뭐해』

『얘 너모르니』

『몰러』

『단단이드려라。조흔물을 에이고가서 목욕을한대。빨리가자。지금안가면 못봐』

수남이의말을드른 복동이는 누님을졸라서 새옷을가라입고 나섯습니다。

두아해는 다름질을하야 동리압폴지나칠때 복동이아버지와 수남이아버지는 정자나무밋헤서 담배를뒤면서 쉬고게시다가 수남이와 복동이를보고 불럿습니다。

『너이들어데가니』

두아해는 거름을멈추고 공손이례를하고나서

『무지개타러갑니다』

이말을드른 두아해의아버지는 무럿든담배대를 때고『허허허허』웃으셧습니다。그래도 복동이와 수남이는 빙글빙글웃으면서 또 다름박질을 첫습니다。

넓은 들을지날제도 아름답게광채나는 무지개는 사라지지안코 빗나고 잇섯습니다。

논매는 일군들이 손을 멈추고 논두렁에 걸터안저서 수남이에게 무럿습니다。

『수남아 어데가니』

『무지개타러갑니다』

또일군들은 손벽을 치면서 웃기를 시작하엿습니다。그래도 두아해는 빙글빙글웃으면서 다름박질을 처서 갓습니다。그때논두렁에서 멩꾸이를 잡든 수길이를 만낫습니다。

수길이는 멩꾸이를 잡든손을 멈추고 수남이에게 무럿습니다。

『수남아 너이들어데가니』

『무지개타러간다』

『어데잇니』

수남이는『저긔』하면서 남쪽 하날을 손가락질햇습니다。

푸른산에 아름답고 찬란한무지개다리가 뚜려시 서잇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보면서 두아해는 다름박질을 첫습니다。수길이도 따러갓습니다。세아해들은 발바닥이 부르텃습니다。그래도아프지도안헛습니다。배가 고프고 다리가아퍼도 아프다는말도하지 안코 다름박질을 첫습니다。산못동이를 돌때 나무하는 아해들이 나무지개를 밧처노코 쉬고잇다가 다름박질을 처서오는 세아해를 보고무럿습니다

『너이들 어대가니』

『저긔보이는무지개타러간다』

세아해는 땀을 쫄쫄 흘리면서 먼산우에 뿌리를 박고잇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가르키면서、빙글빙글 웃고잇습니다。

나무군아해들은 무지개의 아름다운빗에 취해서 멍하니 보고잇섯습니다。그중에 똑똑하고 영리한 순남이는 수남이에게 이러케 무럿습니다。

『엇더케타니』

『웨모타。하날에서 어엽뿐따님이나려와서 제일먼점 다리를다는 사람을다리고 하날에 올려간대』

가만이 듯고잇든 순남이는 또 무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되나』

『하느님의 사위가되어서 신선이된단다』

이말을드른 여러아해들은 나도、나도하면서 수남이를 따러 다름박질을처서 따라갓습니다。서로서로 먼저갈라고 다투어 다투어 다름박질을 처서갓습니다。

무지개가선 먹가티 껌언산과 험하고 무서운산을 올라가기를 사작햇습니다

이러케 죽을판 살판 올라가니 아름답게 빗나든 붉고푸르고 누르고한 일곱색의 찬난한 무지개、

그무지개는 벌서갈곳업시 사라저버리고 해도서산에 낫슬감추어 어둑컴컴햇습니다。

행복을 차즈려 왓든 아해들은 차즈려든 행복은 찻지못하고 두번다시 오지못할 꿈나라로 가면서 무지개를 부르며 사라지고 마럿습니다。

二、막잡이「웨이브」

『하사미끄테』라고 하는데 이 『웨이브』가 업때까지、구식그대로조선에서 류행이되여 왓습니다。

『고테』를 드겁게달구어가지고 가위질하듯이 막지저넘기는까닭에 산(山)은 뚜렷이놉고 골은죽 들어간대로 정수리에서부터머리 뒤까지뱅뱅돌려가며지졋습니다。산과산사이가 갓가운이만큼 첩첩한산악(山岳)을바라보는듯、좀거세여보입니다。

모 델―하현숙

미용사―정구지

(吳 淑 根)

미인이되려면?

―미국「뷔ー너스」의미용체조―

육체미!육체미하고 말로만 떠들지말고 천생육체미를 만드는 비결하나씀은 아러두는것이 조습니다 무슨일이던지 경험에서 어든방법이 신용할수잇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에서에는 경험방(經驗方)이라는것이 제일 신통하게 맛잇지안습되까?

또미국서 건너온 이야기입니다만는『헐리우드』에서 제일가는 육체미를 가젓다하야 모든사람에게 흠모를 밧고잇는 영화배우『아이린·첸치』라는 처녀는『무엇이 나로 하야금 육체미의 일인자가 되게하엿나?』하고자긔의 비결을 공개하얏습니다。그비결에 말한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참고에 쓰시도록 하게습니다。

×

그런데 이훌룽한육체미를 가진『아이린』양은 맨처음에 보통의 유명한조각가『미로』가 만드런『뷔ー너스』녀신의몸 집과 독갓고키까지 적도 크도 안하다니 흠모되는 일입니다다그 몸집치수는

키가	오피ー드
중량	구십팔폰드「이
목덜미	십이「인치」반
가슴둘레	삼십이「인치」반
허리	이십사「인치」반
엉뎅이	삼십오「인치」
팔둘레	륙「인치」
발굽치	칠「인치」반
넙적다리	십이「인치」반

이랍니다 여러분엇더합니까? 자신잇는분은 몸재이는자를 사다가 아모도 못드러오게 문을 구지닷고 혼자 슬적재여보고비교해보시지요

첫재 머리를 치대받갓해 최 누려드리고 엎퍼저 누웟습니다 그리하야 다리를 될수잇는대로 놉피 올려서 회회두릅니다 이때는 전차우에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생각을하면 조흡니다。이러 하기를 십여번 계속한다음 다리를 아페 위로 정확하게 흔듭니다 이것은 네『아ー린』가 오랍동안이나 계속하든미용체조니 아마다른분들에게도조호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리기를끼가만홀지라도 이체조만 늘계속하면 육체미는 가질수잇는 것입니다。

위생상으로본 자전거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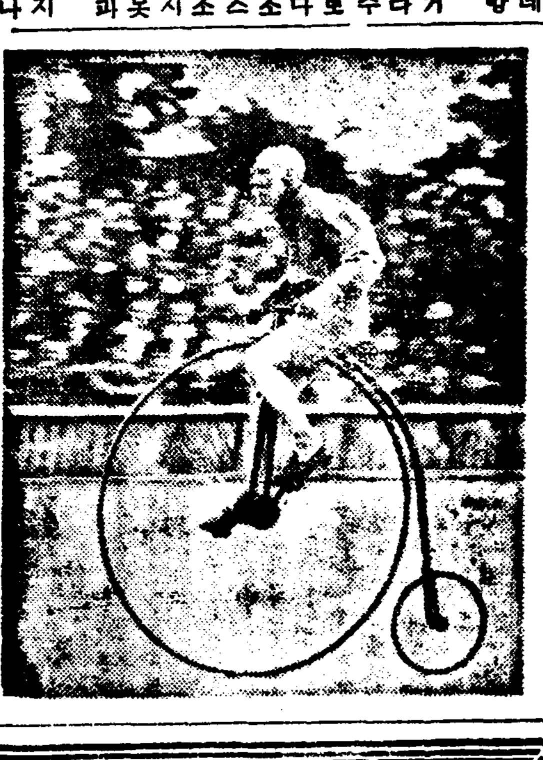
잉태못한다는말은거짓말 특수환자에게해롭다

자전거를 타면서창에 제일 영향이 큽니다 그순간순간은 그다지 큰영향이업는것갓지만 그것이 오래동안 계속되는데 따라서 신체에 끼치는 영향이 평장합니다。

오래동안 타고 도라다니거나 날마다 일정한 정도로 타고다니면 흉사히『마라손』경주 모양으로 심장이 보통사람보다 훨신크고 강해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국괴에잇는 청소년으로 몸에 아모병이 업스면얼마던지타고 도라다녀도 조흔운동입니다 더구나 도회지에서넓은 운동장을 가지지못한 소년들은 신체의 훈련과 실무를겸한조흔 운동입니다

탈때는 자세를 바로 가지도록 힘쓰십시요。아모리케나



몸을비ー꼬아가면서 타는것은 골격이 구버진념려가 잇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한사람은

몸을 자그나 뭐가약한 사람은자전거가 대단히 위험하고 해로운것이니 하고 다니지안토록 하여야 합니다。신장염이거도 해로운것입니다

그외에 녀자가 자전거를타면 아이를 나치못한다는 말이잇스나 이것은 엉터리거짓말입니다 탈수잇스면 타고다니는것도 조흐나 정도에 넘지안토록 하여야합니다

(사진은 옛날자전거)

長安에 팍찬人氣 "女人劇의 밤"

明夜七時半、府民館에서

경성녀자고등청년회안에 잇는 직업녀성구락부의주최로 상랑한 첫가을의밤 여러분께 크다란선물을 내노흘것이잇스니、투루히 본면에 소개된 『녀인극의밤』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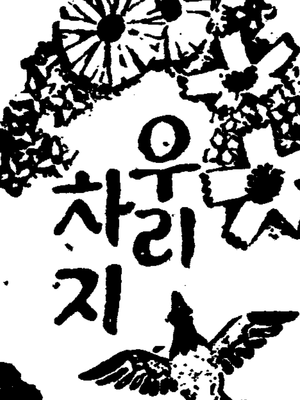
각번은 「존·메이스필드」의 원작인 『낸의悲劇』을 선극에조예기픈 함용업(咸龍晶)씨가 번역한것이며 극의내용은 일전에본면에 소개한바와가튼 비극중의 비극입니다。그리고 출연자의면면을보드라도 일직이 소인극에 경험이만흔분들인즉 여러가지점으로보아 이여인극의밤은 대인끼와 대성황을 눈갑고집을수 잇습니다。이날도 범서타어 일할(二十一日)입니다。장소는부민관 시간은 일곱시반 편한자리에서 구경을하시려면 남먼저 오십시요 만원만되면 세상업서도 못드리렵니다。

회비는 어른학생할것업시 사십오전균일 이십인이상단체에 한하야 한사람에 삼십전입니다。

장가를들다니

주책업는 늙으니도 잇지요영국사람『쩨임스』라는 여든한살된 늙은이는 얼마전에 영처를하고날마다 안해의 무덤에 가서 외로운신세를 하소하고잇던차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맛나게된『마켄논』이라는 늙은과부와 사랑을속사기게되엿답니다 그리하여곳 약혼이성립되여서 결혼식을하라든차에 새삼스리 이늙으니는 전처가 가엽다하야 약혼취소통지를 보내엿답니다 결혼날을 압두고 파혼통지를바든 신부『마켄논』과부는 일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얏는데 며칠전에 재판소에서는 삼백원만 물어주라고 판결이 내렷답니다

우리차지



"달과구름"

하늘은 바다
구름은 땅
거누가 그리나
이롤모를 지도를
◇
달스밤
보름날스밤
우리집 담벽에
달님이 그린그림
검은 나무 가지。

(글쓴사람 강소천)

市內各普校 運動會날짜

學校	날짜
淸雲公普	九月廿一日
[illegible]公普	九月廿二日
[illegible]公普	九月廿三日
惠化公普	上同
阿峴公普	上同
攻玉私普	上同
齊洞公普	九月廿四日
華山私普	上同
水下洞公普	九月廿五日
仁峴公普	上同
往十里公普	上同
昌信公普	上同
壽松公普	上同
渼洞公普	九月廿六日
龍山公普	上同
竹添公普	上同
同德女普	上同
三興私普	九月廿七日
[illegible]男普	上同
校洞公普	九月二十九日
新明私普	上同
[illegible]私普	上同
新明私普	上同
槿花女普	十月二日
[illegible]仁私普	上同
[illegible]成私普	十月五日
梅洞公普	十月七日
加明私普	十月八日
師範男普	十月十日

貞洞公普運動會

가을에 접어드러 각학교에서는 교내운동회 수학려행 원족……이러한 기쁜일이 만습니다。십팔일날은 시내 정동(貞洞)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가잇섯습니다

호루몬配合붕산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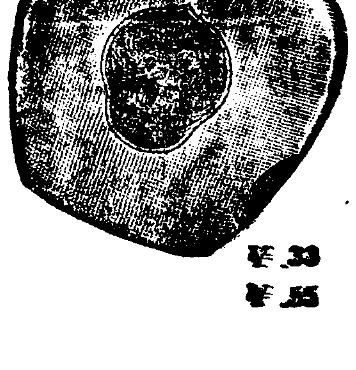
風鳥メール (메ー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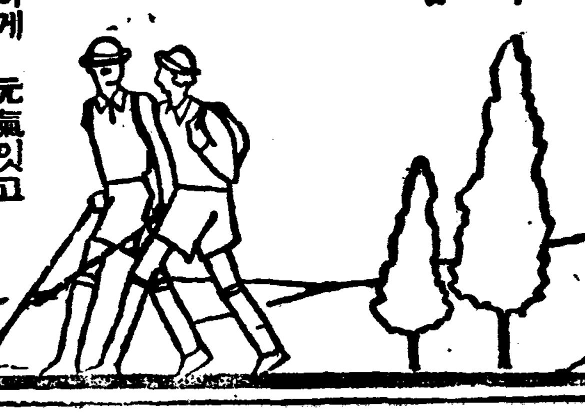
가을살결!

발느면발늘사록 살결이더욱아름다워진다。

평평하게 元氣잇고 아름다운近代化粧의 아가씨의 化粧下로 愛用되여잇는 가장 조흔크림입니다

化粧下로 거친살결防止에 살결젊어지는데 기름끼잇는분에 온근한化粧으로 男子들의 面刀後에





戔.30 戔.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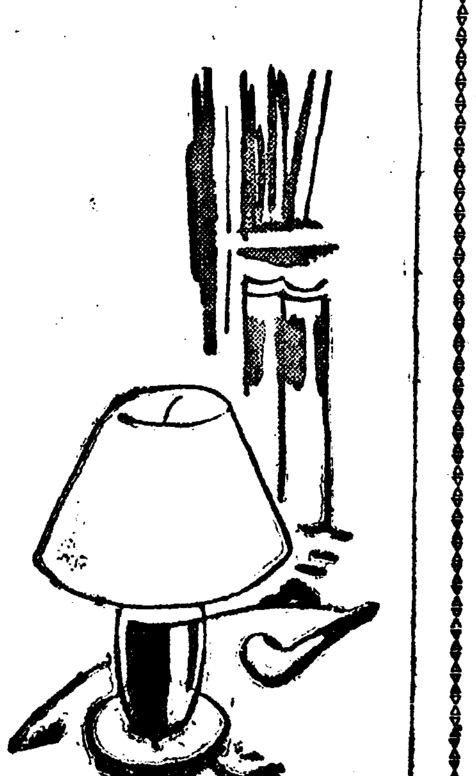
姉妹品 藥用化粧品

風鳥チーゼル

整肌料として古來より有名な藥より抽出せる最も新らしい最も効果のある藥用化粧水

戔.50

學芸



一情熱의나라西班牙一 兵火에살어진 世界的藝術品

鬪牛의나라 西班牙、「칼멘」의 나라 西班牙는 꿈의나라이며 情熱의나라이다。南歐의 아름다운 風土와 다사한 氣候가 빗저내인 西班牙의歷史와 藝術은 그대로가 神秘의「상·쏘시」엿다。

그러나 一朝에 이꿈의溫床을 擾亂한暴風雨！人民戰線과 國民戰線의 對峙한兩大潮流는 그부다치는 곳마다 戰煙이일고 彈雨가 내려 이情熱의 領域은 마치 내 灰燼의 焦土가 되고말엇스니 날마다 報導되여오는 叛亂의兵火속에서 타무너 업서진 犧牲을當한것은 이나라의 精華인 藝術이다

數만흔 繪畵와、影刻과 建築의 世界的자랑꺼리 이든 藝術品이 이제는 그 破片殘影도 남기지안코 다업서저진만은 그중에도 第一아깝다고하는 이高貴의 그림 두쪽。(上)은 世界的名匠「벨라쓰케쓰」의 作인데 「필리프」四世의 公主「마리아·테레사」親王의 肖像。(下)는 亦是名匠「고야」의作으로서 「마야·베스틱다」라는 題目으로 「알바」伯爵夫人의 肖像인데 모다 國寶로서 「마드릿드」의 博物館에 所藏되여온 것이다。

一批判과中傷一 最近의批評的傾向 (六)

白鐵

事實우리들은今日과가튼이暗澹한 天氣를 對할때에 그天氣아래서 오히려 未來의 光明을 探掘하는 人間을 생각할때면 그것은 數千길밋헤서 苦行하는 鑛夫들의 苦行을 聯想하지 안을까。그러치안으면 그코커서스山上에서 苦惱苦鬪하는 人間巨神의樣相을 생각해지지 아늘까?

그런苦鬪의 現實을 前提하지 안코는 그未來에오는 偉大한時代를 發見할수는업다 그런意味의 現實的苦悶을

理解하지못하고 今日에잇서 그길을 다만政治、實踐的이라는明朗한文句에 依하야 說明하려는 태도를 나는 林和君의 輕薄한 誇張이라고 理解한다 더구나 君이、도리혀내가 提示하고 잇는 人間探求論에 대하야 資本主義末期의 人間이라고 附加하며 現代的腐敗와 表徵이라고 斷定하고잇는때에 林和君의 語套대로 論文을 讀人의 自由대로 理解한다고하야도 君의그 奇妙한 批評心理는 到底히 理解하기困難한바가 잇다 大抵 白鐵은 언제 어데서 資本主義末期의 人間을 探求하는것을 論한일이잇섯든가? 하나 林和君이 나의探求人間에 對하야 그런規定을 내리우는때는 나의所論을 杀離하거나曲解한意圖가잇는 以外에 몬저 理解以外거리 그觀念은 君의文學的意識에서 오는것이라는것을 理解하는 나는文學上의 論爭의 相對者로서 君에게 커다란 不滿을 늣기지안을수업다 웨그때

나하면 내가 相對를選擇할때에는 언제나 果上의論敵으로 相對로하고싶픈 心情이잇는까닭이다

事實 나는 林和君이 내가同序論과 文學閑談中에서 主로作家의 精神으로서 說明한 苦悶의 文學的境地를 說明한 文學者는 決코 苦腦를 避하고 사양할것이 아니라 도리혀 積極的으로 自進하야 그苦腦가운데 뛰여들고 거기서 苦腦와 어우러저 格鬪할때에 文學者의 그稀貴한 自己抛擲의地에 依하야 도리혀 그苦腦를 克服하게되는 過程을말한데 니르러서 林和君이 내가 使用한文句中의 消極과 積極을 絶望과 孤獨과 關聯시켜서 그것은 論理學的이아니라고 論明하는곳에 니르면 나는

다만 文學者로서의 林和君을 위하야 眞心으로 痛惜하는일바게 무엇이라고 答辯할 文句를 생각할수업다 여기서 現代의論理學이 너무 常識化되고 廣汎하게布流되는까닭에 意外의 場所에서 一個의드렉탄티스트에게濫用을 當한것도 可歎한 일이며 그소위 積極的과 消極的을 作家의 現實에 接近하는 態度로 理解하지못하고 아무關聯업는 字句에 連帶시키고 잇는 文句理解의 逆謂도 決코 看過하기어려운 問題로되 무엇보다도 林和君을위하야 可歎할일은 文學의 眞實한 境地로서 巨大한 作家가 그들의 文學完成의 境地로서通過하는 場面을 全然理解하지 못하고 그巨大한 自己抛棄의 境地를 自棄라는同音의 文句를 取擇함으로써 放棄해다는것이다

하나 林君이 文學的境地로서 苦悶에對하야 沒理解한것은 君의文學的天賦의 問題며 그敎養의問題니 도리혀 容認할것이잇다고하더라도 君이 그自身의 無智를 도리혀便宜한條件을삼어서 그우에 個人的惡意를加하야 意外의 非難을 나에게보내려고 할때에 나는 君의 그小人的態度를 決코 看過하려는者는 아니다 그苦悶問題를 累累히 批判하는데잇어 林和君은 내가 苦悶의 精神을 主張하고 잇는것은 무엇보다도『不共戴天의敵 新興文學』의 創作方法問題를 反對하기 위한것이라고 指摘하고잇으나 實로 그臆說은 極에達하얏다고 볼수잇다

例의 人間探求序論 그他의論中에서 내가 過去의 創作方法問題에 反對의意를 表明하고잇는것은 苦悶問題에서가 아니라 그理由가 全然히 다른곳에 잇다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의地形的考察 一徒步探險의經路에만限하야一 ③

姜在鎬

風害는主로 冬季降雪의 際에생기는것가튼데 顚倒된方向은 大北風의强烈한것을 보혀뿐안이라 넘어진巨木의 根部에는 礫石이 어데던지 붓터잇슴을보와 地盤이安武岩으로된까닭에 根은깁히 三四尺以上에達하지못하고오즉 樹根만三十餘尺에 뻐치나버섯버섯한 浮石層及腐植土上에선것이라 冬季樹枝에 積雪한데다 强北風에 부닷치여 넘어진것이언던가 推測된다 이樹木은 제樹齡을 다하지 못하고 顚倒枯死 하거나 우리 探險團처럼 入山 露營하다가 不注意로 燒失된것이 갓금山火跡枯木林을 보게되는 것이다。이와가티 한동안 低濕한 沼地를 지나면 도한동안은 緩漫한 傾斜에 閑陽한 丘陵을 만나게되고 이것이다하면 끗이업서보이는深林地帶를지나고 지난다。이러한無人密林地帶를 거듭지 二日만에 처음으로 四方이 번-한데에다다르니 이곳을 神武城(或稱神武時)이라한다 무슨城 이라는地名은 多分히 人爲的으로 築造한地形的地名이만코 時는嶺보다 나즌 재의地形的地名이다、그러나 이神武城에는 人爲的建物의 城蹟은 볼수업고 오즉地形이豆滿江江源이라 할만한 두溪谷이 神武城을끼고 흐르니 自然의城이라할가 또는이溪谷이 滿洲安圖縣方面에서 神武城으로 오는쪽에서나 白頭山에서 이곳으로 나려오는便이나、다 十餘米의노피約三十度의 急傾斜의 溝壑이 잇스니 이것을 가르처 神武時라하엿는가 推測될뿐이다、如何間이곳은 滿洲國安圖縣으로부터 朝鮮茂山 甲山方面에 通하는要路이다 이곳을 건느면 文字그대로 컴컴한 原始深林地帶이다 나무와 나무사이 가지와 가지사이에는 創成期의 遺物가튼松蘿(송낙)가 仙人의 수염처럼걸려잇다、땅에는 蘚苔가 두터워진다、이러한 深林地帶를 지나고 또지난다、이도한時間 두時間이아니다、하로지나 잇틀사흘째이다、山에올라 山을 못보이치 넓은바다에 航海하는사람이 이에서며 갑갑한 생각이어 맛陸地를 그리워하듯이 山에서山을 찾기 三日만에 처음으로 바라본山이 南胞東便에 소사난白頭連峰의 間白山이다 이山을 바래볼수잇던地點이 海拔一千五百五十米 그러니海拔八百六十米의 農事洞을떠나 三日동안을 올라온것이 겨우 六百九十米이니 標高로말하면 서울서 하로行程인 三角山白雲台에오른셈이다 말하자면 七萬米距離를 거려오는 동안에 겨우六百九十米의標高를 올라서니 千里天坪의 地勢의 平坦을推測할수잇슬것이다。이로부터는 傾斜가조금急해지는듯하다 神武時 며듯-한高地이다 우리露營地에서 본 無頭峰은 마치 慶州邑旅舘에서 新羅王陵을 바라보는노피程度이다 그러나 不過十分行苦를못해서 無頭峰의存在를 알수잇슬것이다 白頭山에 오는사람으로 이峰을 오르지안코 白頭山을 大觀할수업다 이頂上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山에 올라 山을 그리워하던 心思를일수잇슬것이며 三日동안 거려온 二百十餘里의 無人地境은 文字그대로 樹海라할것을 鳥瞰할수잇다 우리가오면서 실개천가튼 豆滿江國境을 건늘때마다 이것이 滿洲이니 저것이 우리땅이니 하엿지만 이곳서보는 저 樹海에는 國境이업다는드시 白頭山의 斷崖가기도하고 地面에는 海綿가기도하고 毛가 지기도한 白灰色의 蘚苔類가 한기슭기로 展開되엿다、一望無際의 千里天坪도 이곳서처음으로 그雄大를 일수잇다 오른쪽 西南으로는 錦峽山(一九八五米) 臥獅峰(二一四五米) 間白山(二一六五米) 增岩山(二一七三米)의 白頭連峰이 잇고 左便으로는 한峰峰가보이나 各각히가보니 名實相符한 無頭峰이다

無頭峯

無頭峰은 海拔로는 一千九百二十九米이니 南胞의 智異山노피만하나 白頭山에서는 無頭峰이 山岳답게 노여주는峰이다。

『루포르타쥬』① 移民小話 一報告NO·1一

哈爾濱　蘇星

北滿의 國境線인 虎林縣서의 일이다 나는 그날아침 일직이 密山縣城을 떠나서 楊木崗이란 部落을지나서 虎林縣 武林洞이란 朝鮮移民部落을 向하여 出發하엿다 一行은나以外에 警護兵二十餘名에 輕機關銃 一臺를奔하엿다 그때가 八月인지라 날이찌는듯이 더웁고 또한 비온後의 길이진흙가티되여 하로終日 말을 달려도 겨우二四十里밧게는 더가지못하엿다 楊木崗에서 武林洞까지 約二百餘里！ 이러한 路程으로서는 그곳까지 到着하기엔 몃칠이 걸리게될는지 豫定도 못하엿다

더욱이 이地帶 一圓은 거의 전부가 濕地地帶이라 말허리까지 진흙에 파뭇치게되여 아모리 채쪽질을하여 말을달리여도 그以上의 里數를 進行하기는 困難하엿다 武林洞이란 部落은 山間僻地의 移民地이라 그곳 住民들은 水稻와 阿片을 耕作하여 生活하는 모양이엿스나 今年엔 水稻도 全然 잘되지안허서 벌서 食糧이 업서서 죽게되엿고 또한 그우에 雪上加霜으로 일홈모르는 傳染病까지 생기여서 全部落의 半以上이 病床에 누어잇스며 죽은 사람이 벌서 三十餘名이 넘어서 全部落이 죽은듯한 恐怖狀態에잇다는 소식이엿다

元來 이武林洞은 그部落가까히 馬賊의 巢窟이 만헛고 또한 交通이 몹시 不便하엿기때문에 武林洞 部落自體가 外部와 自然히 련락이 번번치못하여 한原始的自給自足의 經濟生活을 하여온곳이라 누구하나 이러한 所聞을 일즉이 모르고 잇섯든것을 마침討伐가는 軍隊가 그곳을지나다가 이部落의 이러한事態를보고 곳中央機關에 알리게된것이엿다

나는 곳 나의所屬機關과 議論하여 醫藥品과 救濟金若干을가지고 急速히 飛行機를 타고 密山縣城으로 그곳에서 다시말을타고 武林洞까지 가게된것이다 이러해서 幸히 열닷새만에 途中에서 馬賊한사람 만나지안코 無事히 武林洞에 到着하엿다

部落의 村長인듯한 白髮이 바람에 휘날리는 老翁한분과 「피스톨」을 허리에 차고 長銃을들러멘 村落의 防衛隊長인듯한銅色의 얼골로 元氣잇게 보이는 三十前後의 靑年에게 引率되여 武裝隊一團의 歡迎아래 이部落의 조그마한 집에 들엇다 讀者여! 故國을떠나 水陸數萬里의 露滿國境地帶의 一隅에 잘 몰으는 한村落에 모여사는 우리同胞들을 보게된 나의젊은 靑年的 感激을 想像하라! 그날밤 내가 조선사람 인솔안老翁村長은 몹시도 기뻐하면서눈물먹음은눈으로 이部落의 來歷을다시가리 이약이 하여주는것이엿다

「이部落의 現在人口는 約五百餘名이나 멧변전엔 九百餘名에 가까운人口로서 이移住民들은대개 露領沿海州와 南滿 間島地方에서모혀든 移住民들이며 한때는 農事도 잘되고 阿片栽培도 豊富히 되여 滿人行商人들의 出入도 빈번하고 또 남은 生產物은部落全部가 集合시켜서 虎林縣城에 가저가서 賣買하여 學校도짓고 敎會도세워서 그들의 생각은 적은『유토피아』를꿈이기에 마음을 기프게하엿다

그리해서 學校도 人口九百餘名의 部落에幼年學堂이네곳! 小學校도 세곳 中學校도 한곳을 세우고 共同集合所도짓고 적은 新聞이나마 部落의『뉴-스』를모아서 新聞도發行하고 달달이 音樂會 演劇觀覽會가튼것도 開催하여 自足自給의 生活態이엿스나 놀랠만한 文化型態를 가지엿다 이러한 平和한 生活을하여오면서 그들은 自己自身들의 生活基礎도 굿굿이 싸여왓스며 水田耕作地도 넓히고 阿片栽培地도 더廣大하게되게하고……

故事拾綴 ⑦ 五印度의情勢

湖岩

印度가 오늘날도 그러치만 慧超의遊記에 나타난 八世紀初의五印度는 現實의世界가 아니오宛然히 아름다운 夢幻의世界를보는것가튼感을 준다。아무리 佛敎의盛行하는 淨土라하야도 國家치고 刑罰이업고監獄이 업다는것은 곧이듣기지안는다。그러나 刑罰과監獄이업슬뿐이 아니라 狩獵과 屠殺도업다。慧超의 遊記中에 갈우되 「五天國法。無有枷棒牢獄。有罪之者。據輕重罰錢。亦無形戮。上自國王下及黎庶。不見遊獵放鷹走犬等事。道路雖有足賊。取物卽放。亦不傷殺也。若悋物卽有損也。……市店間。不見有屠行賣肉之處。」

現代에도 오히려 死刑을廢止하고 또監獄을 實驗的으로 맨든 國家가 北歐에잇는것을 보면 그當時五印度에 刑罰과監獄이 업는것은 조금도 誇張의說이 아니겟고 또狩獵과 屠殺도 혹히佛敎國의 禁法이엿슬 當時五印度에 狩獵과 屠殺이 업든것도 또한首肯할바이나 盜賊이 사람을傷害하지안는다는 것만은 印度가 아니면 到底히 볼수업는 일이다。

또慧超가 적은印度民風의一節에 一般人이 米飯및乳酪等을 常食하고 醬이업고 鹽만에 잇스며 모든것을 土窟에 이커먹는데 食器等屬은 업다고 하엿다。穀物로 말하면 寺宇舍와 高官富豪의 邸宅은 모다三層樓閣이인데 初層은倉庫 외地下庫가 되고 二層은 外地上層이니 사람의 居住하는 곳으로 王宮의樣式은 모다 平하며 이러케 民屋도 모다 草屋이엿다한다。

그러나 慧超가 印度人의衣食住를 적은中에 그服色에 對해선 一言半句가 업다。이때 新羅人의服色은 一體로 白色을 崇尙하엿고 唐土人의服色은 一體로靑色을 崇尙하엿슴에 反하야 印度人의 服色은 오늘날도 그러치만 各人各條으로 異花樣을 보는듯한感이 잇거늘 慧超가웨 이點에 言及치 아니하엿는가? 이것만은 저옥이 殊常한일이라 하겟다。

그러나 慧超는 가는곳마다 거의遺漏업시 風土產物및民俗을 말하엿스니 이를테면 中印度에關한一節에 「土地甚暖。百草恒靑。無有霜雪」이라든지 「食唯粳糧。餅麨酥乳酪等物。萬土不出金銀。並從外國來也」라고한것과 그아래 「亦不養駝騾驢等。畜有一兩赤馬之衆。羊馬全少。唯王有二三百口六七十疋。自外首領百姓總不養。唯愛養牛。取乳酪酥也」라고 簡單한숫자로 比較的詳細히 적거노흔것을 보이도 알것이다。

그리고 그는五印度를 서로 對照하야 언제나 一種比較眼으로 觀察하엿는데 南印度에 가서는 「衣著、飲食、人風。與中天相似。唯言音稍別。土地熱於中天……」라고 하엿스며 또西印度에 가는 產物中에 白銀의 所出과 寶貨에 銀錢과 毛布等類을 使用하는것을 들어말하엿고 特히 이西印度人은 唱歌를 잘한다고말하엿다。그런데 여기注意할것은 慧超가 西印度에 갓슬때는 西印度가 곳「아라비아大食의侵略을 입어 그國土의 半分을 喪失하든때이다。그러므로 慧超는 「見今被大食來侵半國已損」이라고 簡單하게 적엇다。西印度는 當時이오 大寔은大食이니 곳아라비아인 바 이記事를西洋史에 對照해 보면 더욱 興味가 잇슬을 깨닷겟다。

慧超가 最後로 北印度에 가서는 그地方와 國勢를 말하엿스되 「從此已北。漸漸有山」이라 하고 「國王兵馬不多。常被中天及迦葉彌羅國屢屢所吞。所以依山而住」라하니 이것도 史料로 크게 參考가 된다한다。

그當時印度風俗에 王侯以外에는 어떤人物이든지 旅行할 때 糧食을 가지고 다니지안코 드시 가는곳마다 飲食을 어더먹엇다 한다。이美風은 어느時期의 朝鮮과도 비슷하엿스며 無錢徒步旅行者에게 가장큰 便利를 주엇슬 것이다。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漢詩 桐岡考選

『蓮』—押心

佳作三之三　平北龍川郡楊光面忠武洞　金瑩珍

亭亭玉立碧波心
點淬些埃不敢侵
露凝月出色逾淨
雨斷風回香更深
埗以人中君子比
胡然天上乙仙臨
惟恨濂翁千載後
更無同德遠相尋

讀者社交室

◀尋兒 나의從侄九歲男兒(名昇鳳玉)가 昨年겨울 京城新孔德町의 伯父집에갓다가 지난十二月十四日(陰十一月卄日)에 麻浦線孔德町 電車停留場附近에서울며어드로가게 絶無消息입니다該兒의特徵은 平天頭로 語訥하며 시골티가 滿面하며 後頭部는조금突出하고 눈은쌍가풀이며 우슬때니(齒)가 露出됩니다그리고 迷路時衣服은 紅上衣、黑下衣에 黑周衣엿습니다 京城西大門內外에 居住하시는 여러분께서該兒의 蹤跡을 짐작하시든지 또는 收養하신분으로 左記處로通知하시여 該兒的中時에는 收養費外에 數十圓의 相當한謝金을 바더드리겟습니다 該兒의 父母는 每日呼哭으로지내니 目不忍見입니다 그러나 收養하신분이 그대로收養코저하면 그것은相議하겟고 謝金도드림업시 드리겟스니 蹤跡만알려주십을바랍니다 京義線金郊驛附近陵洞 昇應順

◀求婚！本人은今年二十七歲되는未婚男子입니다 社交室을通하여 配匹을求하려하오니 左記條件이俱全하신분은 곳通信하여주십시요 性格이溫厚하고 中等程度의敎養이有하고 입이무겁고 몸맵시호리호리하고 健康한肉體로未婚女性을求합니다 本人은某官廳에勤務하는 俸給生活者로豊富한資產은업습니다 다만서로合理的思量과理智的夫婦生活이라면 甚幸일까하오니 有意하신분은略歷에寫眞을貼付하여 左記住所로보내주십시요 相對年齡은二十五歲까지 無關하겟습니다 平壤府船橋里八三番地의十二號의二 孫華山

◀本人은 原籍平安南道 當年二十九歲에男子이온대 十八歲의普通學校卒業其後某講習所卒業하고 家庭으로말하면 兩親父母와 妻子는 二三年前에不幸이도病死하엿습니다 只今은唯一獨身으로서 都會地인京城에와서 府內龍山某個人商店에서 糊口之策으로써지나가오 求婚보담도 贅養子되기를希望합니다 有意하신분은 本社社交室로 通知하여주시오 一讀者 崔

◀求婚 本人의親舊一人이 今年二十八歲 市內某病院經營者 月收 七八百圓假量 身體健康하온대 今般 家庭不和로 因하야協議離婚하옵고 求妻中이오니 資格中等卒業程度以上 相當한 家庭을 가즈시고 溫順하고 살림잘보살필분으로 有意하신분은左記住所로 直接照交 又는 寫眞履歷等 付送하기바랍니다 京城府鍾路五丁目二四二 金明煥

◀東京에게신 兄에게 讀者諸兄 他鄕에 安寧하오십을 仰祝하옵니다 小生의長男 全羅北道扶安郡富龍面內三里사는 陳炳玟이가 十三年前 東京간후 七八年間은 消息往來가 잇드니以後五年間은 終無消息이오니生死가 염녀됩니다 特히 東京게신諸兄中에 或小生의 愚子를아시는이가 게시거든 社交室을通하야 居住所를 左記住所로 알여주시면 千萬感謝하겟습니다 全北井邑郡永元面雲鶴里 羅鎭烈方 陳基然白

◀小生은 當年三十歲에男子이온데 四海僉位에게 相對者를求합니다 그리하옵고 小生의學歷은 中等입니다 相對者의學歷은 小學程度以上을求합니다 그리고 小生은 父母와同生이全無하오며 新家庭을要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위겸아들노릇을할곳을 무척憧憬합니다 무엇보다도 小生이외로운고로그런곳을 選擇하며 또는단부부生活도조흡니다 相對할 마음이게신분이有하오면 讀者社交室로通知하여주면 小生의住所를 明確하게 回答을하겟습니다 黃海道載寧邑 求婚者

◀大邱新町李求婚女에게答합니다 貴女의體格 性格 趣味等과係累有無를 寫眞同封하야 通知하여주시면 親히 交涉하겟나이다 (住所明記하여주시요) 全南兵營邑內 金光鉉

◀大邱求婚女性에게 答합니다 本人은 今年二十九歲의 慈詳한性格의 所有者이오며 學力은中等校三學年程度이고 財產은中等生活에 實力은 有하온대 幾年前에 最初結婚에 失敗하고 獨立生活을하는中입니다 家庭主婦로서 生活에 對한意識이잇고 性格이 溫順하며 發育이 完全한獨立女性을 廣求하오니 意思가合理되시거든 經歷과 寫眞을添付하여 左記住所로보내시면 本人이 現住所를 回示하겟나이다 忠北陰城郡無極市東光精米所 朴興福

新刊紹介

◀藤井療法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永田町一丁目三 藤井療法院內 藤井會 振替東京七一〇三九番 定價二十五錢

◀京城敎育情報 第九號 發行所 京城府臥龍町一三九 京城敎育情報社 振替京城一二六八九番 定價一部十錢

◀아이생활 九十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基督敎報 臨時號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朝鮮鐵道協會會誌 九月號 發行所 京城古市町一四의一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武田發賣品

夏の胃腸病

胃腸病·諸種慢性病·結核性衰弱

한분이 暑熱에 胃腸을 앓게되엿슬때는 極度로食慾不振과 衰弱을 이르키여症狀은 急激히惡化합니다。

暑熱 이더함을따라서 身體의各機能은鈍하야지며特히胃腸機能을容易하게 障碍함으로써 食慾은 不振하며榮養攝取를 困難케하야衰弱은極度에이르고맙니다。그리하야벌서胃腸이弱한사람 病弱 衰弱한사람은 胃腸을調整하야食慾振起에힘씀이必要가잇습니다

이目 的으로된『아페틴錠』을 服用하면極히效果的이며 食慾을振起시키며 消化를도와榮養의吸收를 旺盛히하는한편 榮養素를補給하야榮養을充實히하며 抗病力을增强함으로써 夏節의胃腸藥과아울너榮養劑로써 實用되고잇습니다。

食慾不振
消化不良
常習便秘
乳兒綠便
脚氣·貧血
發育不良
榮養障碍

食慾을振起시키며
榮養을充實케함

アペチン錠 (아페틴)

55錠(40錢) 200錠(1圓)
500錠(2圓35) 1000錠(4圓50)
一約一月半分一　一約三ヶ月分一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衞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36―1296(9)

連載野談 (三) 布衣記

申鼎言 作 金龍起 畫

마를캐든총각 (八)

여러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단이면서 부르는 그 괴이한 노래는 조정의 대관들과 시종왕대제를 찰래키 위하야 온 여섯마을 초장이며 그밧게 다른곳에서 몰려온 여러 백성까지도 다알게되었다.

이에 그들도 무엇이라 말들수없슬뿐만 아니라 진평왕께서 알으실가 도리혀 두려워하얏다.

그러나 지각없는 백성들은 한사람, 두사람만 모여 안지면

「아니, 선화공주께서 무슨 조치못한 짓을 하기는 하신모양이야. 그러치 안코서야 장안에 소문이 그러케 와자지껄 할리가잇나. 그래, 입결의 말이고 백성의 말이고 저되기에 잇는것이지. 그 처지를 따라서 별다르는것이 업는것이

남자끼리 여자가 모혀 자리에는 여자끼리 선화공주가 부정한짓을 행하얏다는것으로써 이약이와 떠돌 짓거되었다.

이때 여러 편원들은 선화공주에 대한 아름답지못한 소문이 점점 떠널리 떠도는것을 크게 민망히 생각하야 한편으로는 그이야이를 금하고 또한편으로는 그소문이 어찌해 떠돌게된 까닭을 알어보기에 힘을 썻다.

그러나 그 편원의 힘으로도 그까닭은 알수업고 날이갈수록 그 괴이한 소문은 멀정서울로부터 여섯마을의 두메까지널리 퍼지게 되엇다.

그리다가 나중에는 마웃수업시 그소문이 대궐안까지 들어가게되엇다.

이때 진평대왕께서는 천만뜻박게 그괴이한 소문을 들으시고 너머나 놀라사 능히 말을 통치못하시다가

「그래 내자식이 그러케 부정한짓을 햇슬가?」

하시고 긴한숨을 쉬시며 선화공주가 전날에 행하든 그 조촐하고도 점잔흔 행동이며 그 어질고도 매운 심성을 다시금 생각하야 보셧다.

「아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리가 업는데 그러면 그러할 이잇다면 이것은 하늘이 시키심이오 제마음으로 행함이 아니겟지. 만일 그러함이 잇다면 이것도 역시 사람의마음으로 지어낸 소문이 아니오 반드시 하늘이 시키심이 아닌가. 이소문이 심상치 안흔듯. 들리어 내가 그러나 무정한데 여기에 그 아무 근거도 나리에 근원이 어데 잇든지 정하리 내가 귀히 여기든 딸이고 사랑하는딸이라도 나라법에 따라 죽이어야지. 죽여야 할 때 내치어 여섯마을을 지와잇는데 공주를 죽이지 말고 나라에서 본처할 수잇슬고.」

하시며 진평대왕께서는 곳 조정의 문무대관과 여섯마을초장에게 시급히 입시하라는 분부를 내리셧다.

「아, 자!」 그런데 공주가 저러케 부정한짓을 행한때에는 어떠케 처치를하누. 우리나라법에 처녀가 부정한짓을 한때는 죽이되 불에 태워 죽이는 법인데 공주도 그러케 죽일가」

하고 여러 사람들은 선화공주의 앞일이 장차 어찌될것을궁금히 생각하는듯, 서로서로 자긔의 의견을 말하는일이 만헛다.

여러 백성 그중에도 여러녀자들은 서로 한자리에 모와안진때는 물론 혹시 길에서 한물이 만날때, 심한 경우면 울타리 사이로 서로 눈을 맛추면서

「글세 여봉 선화공주가 어쩌면 그래?」

「그러기에 말이지. 가만히잇스면 어련히 조흔곳으로 시집을 갈라고. 그게 무슨짓이여요 글세」

「내생각에는 그럴리가 업슬것가태요」

「여봉 리문이업는 말이 그러게 굉장히 소문이 나겟소. 변이지 변이야!」

「글세 그도 그래요」

하며 방욕질들도 이저버리고 옷을 뺄듯된것도 이저 버리고서 엄연 줄이엇서 저거리는때가 만핫다.

이러한 말소리 또골목에서는

라듸오

二十一日 (月曜)

◇午後六時 코-넷獨奏
一、푸른하늘 二、기쁨의노래 三、스고틀렌드、四、愛嬌한救助者아리아拔萃曲
W、피아노伴奏 헬렌푸스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經濟解說 普專敎授 洪性夏
◇同七時三○分 常識講座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 (釜) 流行歌 釜山公會堂으로부터中繼
一、港口의女子(朝鮮語)(朴)
二、東京娘(日本語)(金瑛)
三、江南哀想曲(朝鮮語)
四、船頭可愛いや(朴)
伴奏 樂友會管絃團
朴壽德 金瑞泰 金宗才
◇同八時二○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제비歌 三、船遊歌 張香蘭 孫瓊蘭
◇同八時三五分 管律 舍館鳳流
奚琴 鄭華石 大琴 金一雙 細笛 李勳龍 杖鼓 金一申
◇同八時五十五分 (東)國內아나운스 世界콘사-트日米國際放送
◇同九時 米國으로부터
一、나이아가라瀑布소곡
二、인디안主人의音樂
三、카우보-이의노래
四、西部大草原地方의舞踊音樂
五、黑人의宗敎音樂合唱
六、南部山岳地方의音樂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分 (東) 基礎英語講座 (一) 靈谷榮
◇同一○時三○分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 (東) 落語 三零亭圓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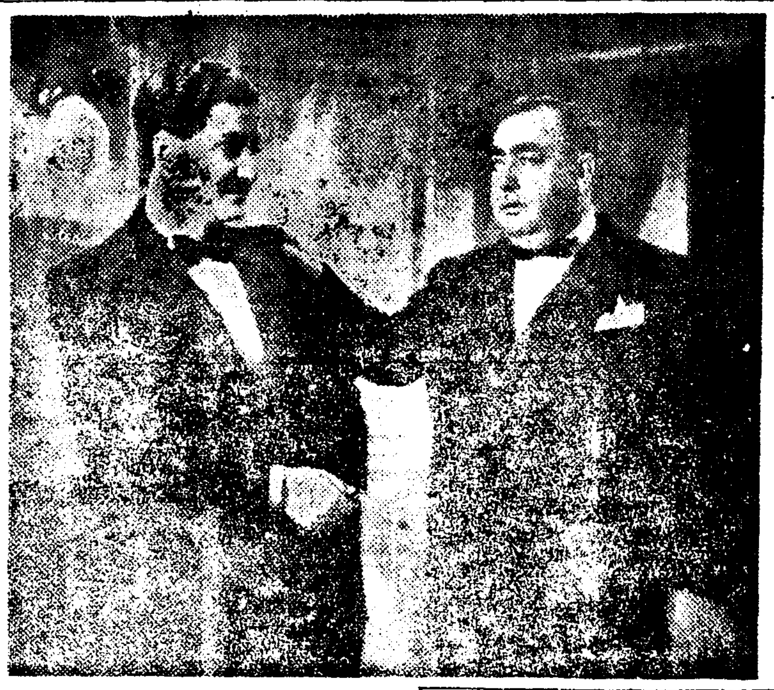
九月廿二日 (火曜)

◇午前一○時 秋季皇靈祭—雅樂院으로부터—
◇午後○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둥둥 二、唱劇調春香歌 曹澤玉 鼓手 韓成九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 結婚習俗の各國 金庠基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行進曲「高等學校生徒」…… 스-자曲
◇同六時三○分 講演 經濟解說 金鐘萬
◇同七時三○分 講演 個性敎育과情緖敎育 普專敎授 金昊壽
◇同八時 新楚漢歌外
一、新楚漢歌 二、배따라기 三、뒷산타령 四、금드렁타령 五、처녀가 閔亭植 宋亭泰
◇同八時三○分 라듸오드라마「梅英이」一場
—配役—
梅英…(妓生)……林玉蘭
春甫…(梅英의養父)石燦熙
張仁伯…(會社員)…李石元
朴泰浩…(實業家)…李流星

◇同二時 (東) 婦人講座 石田 하루
◇同六時 (釜) 釜山開府一週年記念 釜山公會堂에서中繼
◇同七時三○ (東) 講演
◇同八時 (東) 부라질民謠 (금라가질에서부터)
◇同八時一○分 (東) 物語 江川宇禮雄
◇同八時四○分 (釜) 掛合漫才
◇同九時五分 (東) 漫談 越田宮外
聯分…(下女)……金鋼紅
其他떼시민獨唱等
二、圓舞曲「메리위도-」……
三、行進曲「戰友」……
四、푸른하늘……드보르작作曲
五、圓舞曲「메리위도-」…… 레하-作曲
六、行進曲「칼-王」… 칼-作曲
第一高普하-모니카B밴드 指揮 趙秉太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라듸오、劇硏究會 指揮李如水 效果李李正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헬르序曲「詩人과農夫」…슈페作曲 二、序曲… 交響曲第一番中에서…베-토-벤作曲

暦

九月廿二日 (火) 陰曆八月(小)(初七日) 丁丑·木·尾·開
●祭祀에宜함
●秋分二十三日
●寒露八日
金福寶 金恩子



루네·크레르作 幽靈은西쪽으로

이作品은 『르퐁·필로』의 大作으로서 諷刺映畫人의 一人者 르네·크레-르의監督이요 名優 로버트·도낫트의主演이며 이映畫에서 封建的保守的인 그趣味를 固執함으로 沒落하는것을 諷刺하고 米國을 諷刺한것이다

唱劇史上의新機軸 歌劇「春香傳」大公演

보라 適材適役의 名唱들!

指揮 李東白
演出 宋萬甲
脚色 丁貞烈 金容承

—配役—

新官使道 金昌龍	房子 吳太石	使令 金世俊	
李道令 丁南希	香丹 金任壽	使令 曺南承	
春香 朴綠珠	雲峰 李東白	驛卒 趙相鮮	
春香母 林小香	任實 丁貞烈	驛卒 柳大福	
	谷城 宋萬甲	通引 都點伊	
	獄使丁 沈相健	執杖使令 姜太弘	
	級唱 徐鴻九	行首妓 曺鸚鵡	
	執事 丁元燮	妓生 李桂仙	
	首刑吏 韓成俊	成壽香 李玉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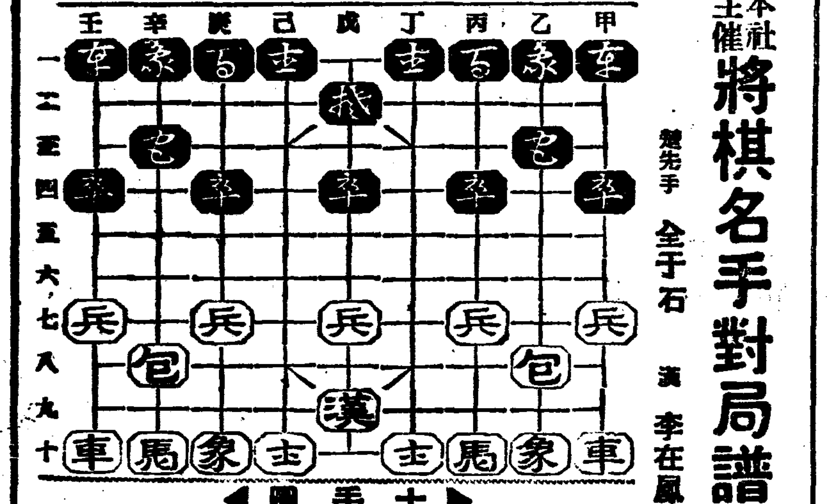
時日 九月廿四日부터五日間 ● 場所 東洋劇場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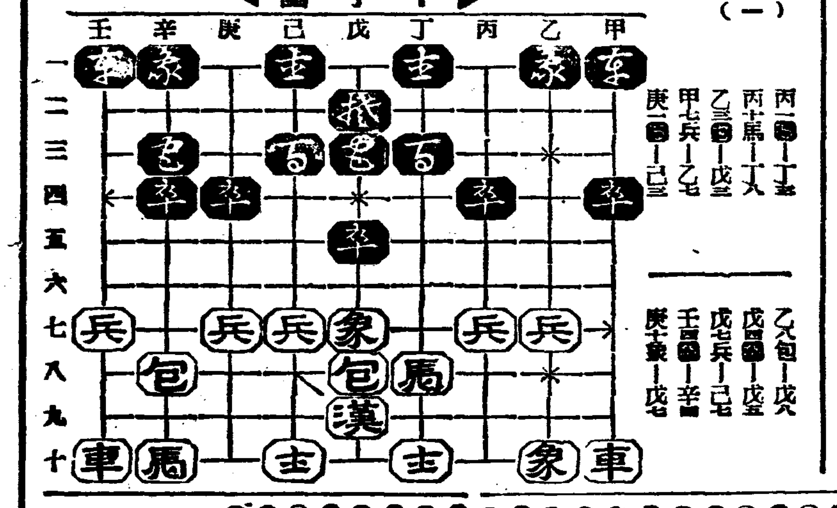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黑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始局圖▶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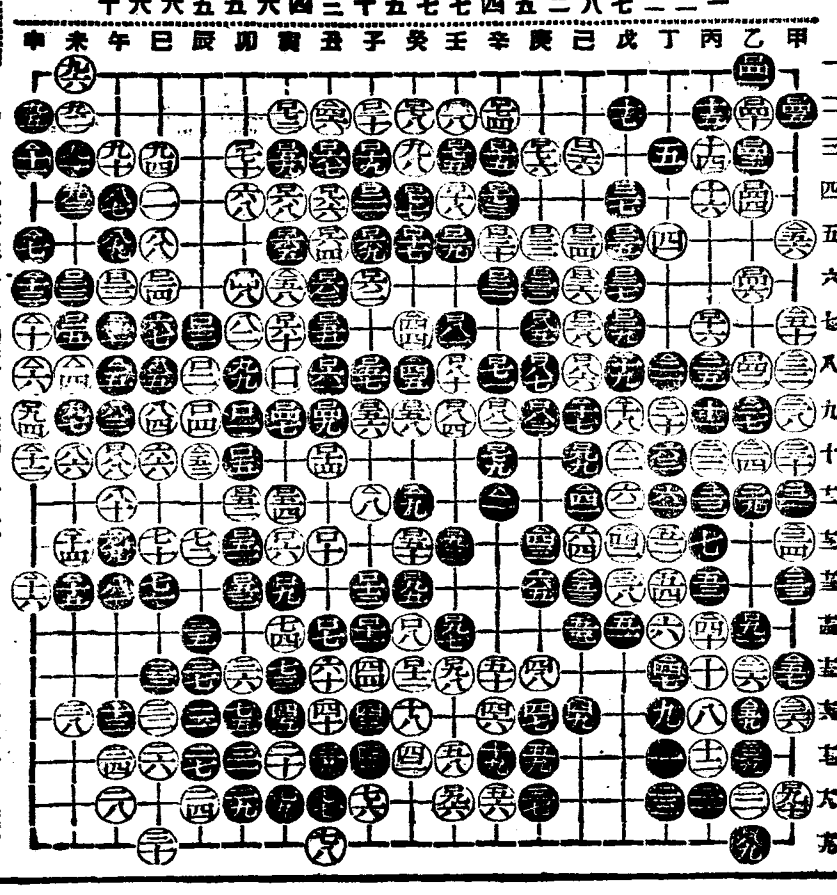


丙一包—丁三 丙十馬—丁八 乙三包—戊三 甲七兵—乙七 庚一包—己三
乙八包—戊八 戊四包—戊五 戊七兵—己七 壬四包—辛四 庚十象—戊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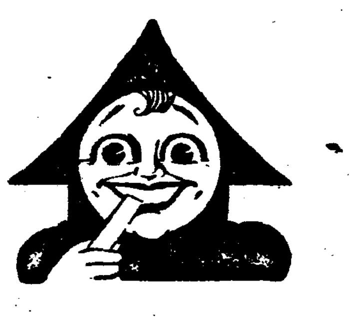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5—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己의十一 ○戊의十二 ●庚의十二 ○癸의七 ●癸의八 ○丑의二 ●丁의十五 ○甲의十四 ●乙의七 ○甲의七 ●甲의十五 ○辰의十 ●己의十三 ○甲의十四 ●甲의六 ○甲의五 ●甲의十五 ○寅의六 ●乙의十六 ○寅의十



蔡權文氏評日 白이 本身數有餘로 用劫策을 等閑이하엿다 白이 乙의十三으로 衝進하야 單數劫을 作用하엿스면 甲六七의 本身劫도 所用업고 短促할 境遇면 乙의十六으로 이어도 餘裕가 인는것이다



リグレー
리구레ー
米國製

每食後에잇지말고
純粹眞正한츄잉껌

消化促進… 잡수신後의胃의무거운氣分을세서버립니다
口中을淸潔新鮮하게
食事、飮酒 喫煙後의不快한口臭를除去합니다
咽喉를濕潤케하고聲音을穩和케하야노래를부르는분들에게가장適當한것입니다

每年二次齒科醫에게齒牙診察을밧고平素는리구레製츄잉껌을씹으면아마一生을通하야强健한齒牙의所持者일것입니다

보기에도아름답고 힌齒牙 爽快한口氣、빗나는눈동자 그리고 活潑愉快한氣象等은 다世界的으로有名한리구레ー츄잉껌을자조씹으므로서어들수잇는것입니다 그리고그意味에잇서서每食後에잇지안는것이가장效果的입니다

三千町步收穫皆無 要救濟二千餘戶

東南一帶의沃畓모다荒地化 宜寧郡內災民慘狀

【宜寧】경남의령군(宜寧郡)은락동강본류와 지류인남강에 연하야잇는관계로 금반수해에 의령면 화정면 봉수면 정곡면 지정면 락서면 부림면(宜寧面華井面鳳樹面正谷面芝正面洛西面富林面)등 동남일대는 수국화하엿스며 비옥(肥沃)을 자랑하든 삼천육백륙십오정사반보의 광대한전답은 한이삭의수확도 어더볼 여망이업는 황무지(荒蕪地)로 화하엿스며 식량과가옥을일코 닥처오는 치위에 기한(飢寒)의 사선에서 헤매일 요구제자가 이천삼백사십삼호에달하고 세상에가상으로 이재소작인(罹災小作人)에게 소작료(小作料)납부를 강요하는지주까지잇서 소작인들을울리고잇다는데 그들의 사리가 실로막연하다고한다

寧越의八十災民 清津通過

【清津】무지한천재 잔인한수마의작난! 정들고뿌리박힌 고향산천을 버리고 절리타향에 살길을차저 남부녀대하고 물녀단이는 리재민의 쓰라린 생애를 누가 아려주랴—지난날에 대홍수에 여지업시 생활의 근거지를 빼앗긴 강원도녕월(江原道寧越)일대의리재민 여든한명은 삼십일일 아츰여섯시 오십분에하물렬차(貨物列車)를타고 청진역두에나리엿다 먼저에 시달니면서도 이곳에 무엇을 하고살것인고 하드시맥풀닌 거름으로 부두에이르러 련락선 신흥환(新興丸)을타고 동일오전열시쯤 라진이란 꿈에도보지못한곳을 차저가고마럿다한다

第二次電氣委員會 甲論乙駁으로終幕

"買電""發電"依然對立

【平壤】우리의부전을 사수하라는말은 삼팔만부민의 표어로 되여잇거니와 평양부전의 전원(電源)문제를 해결할 전긔위원회가 조직되여 일치회합이 잇섯스나 결정을 보지못햇고 재이차위원회를 삼일오후 부회의실에서 소집한후 장진강수전을 시찰하고 도라온위원까지 합처서 그 참고적의견을 드기로한바 송미(松尾) 도엽(稻葉)의원들은 수력전긔를 채용할것을 주창햇스나 주간흠(朱幹欽) 리긔찬(李基燦) 윤영선(尹永善) 위원들은 유사지추에 수력발전은 위험할뿐아니라 장진강수전의 시설을보든가 대일본리화학연구소장 전긔화학의권위자 대하내(大河內)박사의 연구발표를보든가 어느방면으로보아도 평양부전을 살릴길은오직 화력발전에 향해서 매진함에잇다고 주창하여 전긔위원회는 일대분규중에서 갈론을박하다가 또다시 결정을하지못하고 산회햇다

그런데 신시가측 부회의원대다수가 서전회사의 중역인관계로 전부가 아전인수격의 론조를 고조하고잇는관계로 아프로의 부전문제는 아조「델리케ー트」한 관계를 가지고잇는만큼 일반부민은 크나큰 관심을가지고 부전사수를 위하여 일대감시를 할필요가잇다

平壤府電에서 增燈四千計畫

【平壤】평양부전긔과에서는 십일부터 이십오일까지 이주간예정으로 증등(增燈)사천을 목표로 증등권유를하고잇는데 실적일까지에 벌서이천삼백오십여등을 획득하여 개가를올리엇는바 사천등은 무난히돌파할모양이다

금년의 증등상황이 왕성한것은 수요호수로보아 작년만못하나 가옥개축의 격증과 일반부민의 생활정도의 향상으로볼수잇다한다

朝鐵을中心으로 慶北貨物車統制

오는二十五日에創立總會開催 群少業者에大打擊

【大邱】긔보=약이개년동안문제되여오든경북화물자동차합동(慶北貨物車合同)은 드디여 설립되게되여 오는이십오일 창립총회를개최한다고한다 경북도내 화물차업자 일백팔십여명중에서 팔십팔명의 동의를어더다고하며 조철(朝鐵)로부터 다음의삼조건하에 자금대부(資金貸付)를 밧기로 결정하고 창립위원측에서 오만원을 출자하야 기서 십만원의 자금대부를 보듬 삼오만원으로하고 출자본 삼십삼만원 한주에오십원 전액불입으로서 륙천륙백주로 결정되엿다고한다

◇朝鐵資金貸付三條件

一、朝鐵經營의金泉—星州間、三千浦間、全州間貨物車를同時에合同함

二、今後貨物部의 新車購入은포드에限할것

三、合同會社의重役、取締及監査役에 各各一人式朝鐵會社로부터 [illegible]할것

이와가티 합동회사는 결국조철중심으로 창립되는동시에 개업즉시로 포항(浦項)안동(安東)봉화(奉化)김천(金泉)영덕(盈德)등의 오개소에 지점을 설치할예정이라한다

이로말미아마 미가입자 일백여명에대하야 압호로 닥처올 파란이 가장 큰문제라한다 물론 로선긔득권침해(路線旣得權侵害)는 법리상 불가능한문제라고 보드래도 대립으로 말미아마 당연히 임금인하(賃金引下)의 경쟁이 격렬할것이 예상되여 통제로인하야 화물자동차업자로하여금 더욱만은 공포를 주고잇다고한다 그럼으로 당국으로써 조정완화에잇서 여하한 처치를 취할것인지? 금후남아잇는 문제가 가장 주목되다고한다

本社光州支局主催 全朝鮮自轉車大會

來十月四日公設運動場에서

【光州】본보광주지국주최 제삼회전조선 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오는시월사일에 당지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되얏는바 례번보다 더성황을일우고저 금번조선대표로 대판(大阪)에출정한 임긔덕(任基德)김용칠(金容七)제선수와 조선자전거경기선수의대선배인 엄복동(嚴福童)군등을 초빙하야 종전에 보지못하든성황을 일울것이라는바 대회시일과 신청긔일장소등은다음과갓다한다

一、時日 十月四日(第一日曜)

一、申請期日 十月二日

一、申請種別 一萬米、五千米、一千米 三人一組[illegible]리레등도明記할事

一、申請場所 明治町朝鮮日報光州支局

一、賞品 各種優勝者에게는本大會所定優勝旗와副賞及 現金三十圓等을授與함

白川公立普校 學校增設期成

【白川】황해도 백천공립보통학교는 현재 팔학급으로 입학난을면치못하여 변변히 지원아동중 불과삼、사할밧게 수용이못됨으로 일반은 매우유감으로생각하여오는바 지난십팔일오후세시부터 동교에서 학무위원과 학부형、유지제씨가 모히여 십학급으로 증설긔성회를 조직하고 긔부금을 모집중이라는바 위원제씨는 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 林[illegible] ▲[illegible] 劉在[illegible] [illegible]

本社에서보낸衣類 災民에게分給

【全州】풍수해 전북재민을위하야 본사에서보낸 의류는 지난십오일로 전주에도착되자 본보전주지국에서는 완주군(完州郡)당국과 협력하야 재지로 가장우심한 상관(上關)소양(所陽)초포(草浦)이동(伊東)용진(龍進)오개면 재민에게고루고루 배급하여주엇다

晉州水害義捐金 五千五百圓突破

現品도多數히寄附

【晉州】전고미문의 금번풍수해로인하야 진주지방의 리재민수효는 실로삼만여명을 헤아리고잇는바 이들불상한재민들을위하야 조선내는물론 멀리해외에서까지 구제금품이 속속들어오고잇는데 진주수해구제회본부(晉州水害救濟會本部)인 진주읍소에서 지난십사일까지 취급한 구제금품과 출연자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二、○○○圓 晉州 淸水佐太郞 一、○○○圓 同 原田[illegible] 八○○圓 晉州文山 金[illegible] 二五○圓 晉州 許治九 二○○圓 同 長尾米藏 一○○圓 同 鄭台範、河川 崔鎭武、晉州宣敎師 [illegible]任成外一人 晉州[illegible] 三千浦邑、晉州 徐宗波、同 河[illegible]、同 河泳奎 京城 安容鍵 六○圓 晉州川前[illegible] 五○圓 晉陽女子[illegible] 晉州 朴奎鎬、三○圓 晉州 小池傳道、二○圓 晉州 許龍伯 晉州 [illegible]、晉州 金光敎小敎會、晉州 日良弘道、一○圓 晉州 福島松次郞、神戶 張建天、六、五○錢 晉州 朴俊世外三人

以上合計 五、四四六、五○錢

現品 靈神丸五百包 京城朝鮮賣藥株式會社、白米十俵 釜山山本精米所晉州出張所、白米五斗 晉州 李楨式、食鹽二十俵 晉州 鄭相珍

膏藥百包寄托

【潭陽】전조선을휩쓴 미증유의 풍수재로인하여 재지각처에 수만흔 재민의 비참한신음성이 삼문을 흥하여 우리의고막을울리자 각게의동정이 한긔되여 그구제에 열중하자 전남담양읍 선원당약방주 강성문(姜成文)씨도 지난십팔일 자재의 고약백포를 본보담양지국에 긔탁하여 재민부상자에게 배부를의뢰하여왓다

同情金九圓을 本報支局寄托

新上普校生赤誠

【新上】일차 이차로 맹습한금번 대풍수해로 말미암아 참담한 재지리재민들의 생활현상은 비절참절을 극하여 긔한에울고잇는 그들에게 따뜻한 구제동정금품이 모여들고잇슴은 나날이 보도되는바어니와 지난십팔일에는 신상공립보통학교(新上公普校)팔백아동이 푼푼이 모은 눈물의 동정금 팔원십오전을재지리재동포에게 전하여 달라고 본보신상지국에 의탁한바잇섯다 한다

童心에찬同胞愛 純眞한濟救品

本報支局에寄托

【新興】전고에 드문 큰 수재로 인하야 긔아의 선상에서 떨고잇는 백만재민의 정경을 본보의 긔사를 통하야듯고 어린마음에 크게 느낀바잇서 입엇든옷을벗고 또어머니를졸라 새옷을 짓게한후 푼푼히 저금하엿든돈 오십전까지차저 재지에 보내달라고 본보신흥지국에 가저온 갸륵한 소년형제가잇다‖신흥공립보통학교(新興公普校)오학년에 재학중인 김성환(金成煥)(一三)군은 그아우 두환(斗煥)(?)이와 한가지로 지난십사일오후에 새로지은옷과및 자긔네형제가 입엇든옷 한열일곱점과 모흔돈오십전을 본보지국에 긔탁하고 리재동무에게 전달하기를 의뢰하엿다 본보지국에서도 그 순정에 감동되어즉시 본사를거치어 리재민에게보내엇다고한다

宣川署員突然活動 某病院醫師拘引

病院帳簿까지押收

【宣川】지난 십오일 선천경찰서 사법계(司法係)에서는 돌연긴장한 가운대서 미동병원(美東病院)모(某)의사를 구인취조식히고 그의 가택을 수색하여 다수의 증거품을 압수하는 일방 다시 미동병원에서도 장부 다수를 압수하여 갓다는대 비밀리에붓침으로 아직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 잠재한듯하여 전긔미동병원에서는 전번 녀학생오살사건도 잇서아직 놀낸가슴을 진정못한이때에 다시 거듭 심상치안흔사건이 생겨 당황한중에 잇스며 일반은 사건의 진전을 주시하고잇다한다

端川戰友同盟事件 檢事出張取調開始

五、六日內送局確實

【咸興】경찰서의취조는 이미마치고 오로지검사국에 송치할날만 기다리고잇든 단천전우동맹(端川戰友同盟)사건은 지난십팔일부터 함흥법원대정검사(大町)가 리서긔을 대동하고 즉접동서에 출장하야 련일취조를 계속하고잇는중인대 이취조가갓나는대로 느저도오는이십오륙일까지는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될터이라고한다 ·긔소(起訴)는 대개 주모자인 김긔윤(金琦潤)(三七)등 십오륙명에지나지못할것이라고한다

南湖李鍾萬氏의 頌德記念碑除幕

永平學校庭에서擧式

【新上】함남정평군 문산면문흥리(定平郡文山面文興里)와 영흥군인흥면상리(永興郡仁興面上里)사이에 잇는영평광산(永平鑛山)광부천여명과 그지방유지들의 발긔로 그광주남호 리종만(南湖李鍾萬)(三一)씨의 송덕긔념비를 그광산압 로변에세우고지난십팔일 오전열한시부터 분동리영평 학원(永平學院)교정에서 원근각처에서 모혀든래빈 이백여명과 각신문긔자의 렬석하에 긔념비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당일은 식을필한후에영평학원생도의 운동회와그지방주민들의각희대회까지 여러서그지방일대는 완연히 명절날과가티 희색에 차혓섯다 씨는원래경남울산(蔚山)태생으로 일즉구한국시대부터 교육사업에 주력하야고향에는 사립학교도 설립한일이잇고 그후에는 경성에 올라와 고학생갈돕회유지에 진력하야오다가 여기에서 무릇 사업이란뜻으로만은 안되는것을 절실히 깨닷고 조선농민의 갱생을 목적으로 경성에 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얏섯스나 그것마저 뜻과갓지못하야 모든것을버리고 함경도로 갓든것이다

이래 십여년간 온갓 고난을 격거오다가 재작년에 겨우 현금이십칠원을 가지고 고달픈막대를 끌면서 이곳에와서 전긔영평광산을 시작하얏는데 이제 이광산만도 수백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얏고 이밧게 장진삼포(三浦)외 수개소에 광구배여구를 가지고잇는데 그중에는 영평광산보다도 더유망한것도 잇다고한다 그러나 씨는 이와가티 수백만원가치의 금광을 가지고잇스면서도 자긔의 생활은 무섭게 절약하야 광부에게는 남달은 우대를하고 주민들에게는 갈금 기근구제를하며 또 그들의 가녀질을 위하야는 전긔 영평학원을 설립하얏다 그런데 씨는 장차 한갓 재산가 노릇을하려는것이 아니고 씨의 구든 리상인 리상농촌을 건설하리라고 한다。(사진은긔념비와리종만씨)

紅峴分局後援 全朝鮮脚戲大會

【紅峴】황해서흥현번영회와 본보홍현분국후원하에 래이십이삼사삼일간 홍현역전광장에서 전조선각희대회를 개최한다는대일반선수의 만흔참가를 바란다하며 상세한규정은 다음과갓다는대 일반은 대성황을예긔한다고 한다

一、時日 九月二十二、三、四三日間

一、場所 紅峴驛前廣場

一、申請所 紅峴繁榮會

一、賞品 一等八十圓 二等四十圓 三等二十圓 四等廣木一疋 五等白木二疋 六等白木一疋

白米며돈만히실고 島中災民救濟

統營의金榮洙氏美擧

【統營】남조선일대를 여지업시 습래한 초유의대풍수해로 하여금 농산물 어획물의 흉작을보게되면서 인심은 자극히 각박하여진이때에 도기에도 아름답고 숭고한 자선가가잇다 통영군동부면가배리(東部面加背里)김영수(金榮洙)(?)씨는 전번 풍수해에 만치안흔 자긔의 전답(田畓)의 피해도 적지아니하엿고 어업에도 수만흔피해를 당코잇슴에도 불구하고 쌀스무가마니와 현금긔백원을내여 거제도(巨濟島)일반빈궁세민에게나누어주어유지제씨로부터감사의소리가놉다한다

愛慾의彼岸

【107】 李光洙 作 金康穆 畵

가장 깨끗한 어른, 가장 사랑이 만흐신 어른, 가장 진리를 따라서 일생을 사시다가, 진리를 배반치아니하라고 십자가에 못박혀 피를 흘리신 어른, 짓 고생을 하시다가 룩상하게, 그러나 진리와 사랑의승리에서 영광스럽게 돌아가신어른, 그리고 그 시체는 우리네의 시체와 다름업시 썩어버리신 어른, 혜련에게는 이것으로 만 사모하는 큰 선생님, 인류의 구주로 받들기에 족하엿다。 그 어른이 처녀의 몸에서 아니 낫섯기로, 멧천년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어른의 탄생을 예언하지아니하엿기로, 그 어른의 시체가 손에 못자옥이 잇는채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시지아니하엿기로, 그어른이 수중고를다시고 허공으로 올라가서 하느님의 우편에 안즈시지아니하섯기로, 그어른의이름으로 빌면 병도 낫고 생나무도 마르고 아니하기로, 그어른이 인생에게 사랑의 생활 진리의 생활을 가르치신 선생님되시기에 무어이 부족함이잇나? 아마도 어리석은 무리들이 다만 사랑이라 진리라 하는것만으로 고마운줄을 몰라서 예수께서 탄식하신바와 가티『이적을 구하는것』이 아닐까。요술적인 징험을구하는것이아닐까ー 혜련은 이러케생각하엿다。

『도모지 이 더러운 세상에 수도 마음대로 못 밋게 해』하고 혜련이가 언젠가 동무들잇는데서 하란할때에 동무들은 웃어버리고말앗다。혜련은 동무들이 제갈량적곡에서 나오는한탄을 못 알아주는 동무들을원망스럽게 치어다볼뿐이엇다。

혜련은 일즉 그 아버지에게신앙에 관한것을 물은 일이잇섯다

『아버지 사도신경 미드시우?』하고 혜련이가 물을 때에, 김장로는 한참이나 혜련을 물끄럼히 보더니,

『다들 밋는다고 안하든』하길래 더못지아니하엿다。혜련이가 보기에 아버지는 예수교꼼 가튼데는 별로 관심이 업는 듯하엿다。주일날마다 예배당에 가고 일년에 얼마는 자긔몫도 내고 그리고 장로 되고 그랫스면 자긔는할일 다 한것 가티 생각하는것 가탓다。

[illegible]은 예배당에는 대기지마는 평소에는 성경을 볼거나 긔도하는 모양도 아니보이고 밥상도 혜련과 마조 대할 때에만 잠깐 눈을감고 고개를 숙이는것 가탓다。학교 동창들도 대개 그 모양인것 가타서 혹시 가다가 열심으로 긔도를하거나 성경을 보는 애가 잇스면 되려 놀려먹엇다。그래신연극이나 음악회 가튼것이 잇슬때에는 제가 무대에 나설 때에는 무론이오 다만 구경을갈때에도 여간 야단이 아니엇다。문학선생이 소개하는 소설책가튼것은 무슨 보물이나 어든드시 탐독하면서도 성경책이라면 골머리가 아파지는 모양이엇다。이런것이 다 혜련에게는 알수업는 일이엇다。남들이 가치를 전도햇거나 어느 한 편이 가치판단의 표준을 거꾸로 뒤집어노흔것은 사실이엇다。그래서 혜련은 다른 동무들에게 끌려가지아니하고 저 동독한 양심과 태도를 유지하고잇섯다。연극도 실코 음악회에 나서는것도 실혓다。스포츠도 실혓다。뛰고떠드는것이 혜련의 눈에는 천착스럽게만 보엿다。

혜련의 이러한 태도가 혜련을 다른 동무들중에서 비다협적인 고립자를 만들엇다。그래도 혜련은 그것을 영예의 고립이라고 생각하엿다。저를 낫초이기까지 다른 애들의 수준에 떨어지기는 실혓다。혜련은 도고한 게집애라고 생각햇다。

혜련은 실상 혼인문제까지도 인생의 모독인것가티 생각되엇다。젊은 내외가 어린애를 다리고가는 양ー그것은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이라 하지마는 혜련에게는 그것이 아조 동물적이어서불쾌하게 보엿다。육체를 목표로 하는 결합이라는것은 생각만해도 혜련에게는 증생냄새가 코를찌르는것 갓햇다。적어도 나만은 그런 일을 아니하리라고 혜련은 여러번 여러번 생각하엿다。혜련이가 생각하는 깨끗한 세상은 첫재로 남녀의 욕이 업는 세상이엇다。아것은 혜련이가 근년에 그 아버지와 박선생、기타 누구、누구하는이들이 육욕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 들은 까닭일까。

先着 一萬人限하야

百補丸壹箱式無料進呈

孫基禎은世界第一!

몸만튼튼하면 무엇이나못할것이업다 弱한사람은爲先世界的强壯劑百補丸을쓰시요

●獨逸서開催된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孫基禎이一等! 이榮光、이名譽를紀念하고 祝賀하기爲하야 獨逸에는 孫君의銅像이서고 朝鮮에는 紀念體育館이發起되고

●日本政府는 一千萬圓의 保健費를豫算하는等 健康問題로 天地가振動하는 이때에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 健康을爲하며 또

●이世界的名譽을 慶祝하기爲하야 百補丸十圓分 一劑사시는분께 (拾圓包半劑入) 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하얏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 먼저 速히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 中止하게됩니다

●注文書에는必히 祝賀特賣注文書 라고明記하시요

世界第一紀念

百補丸을쓰면 무엇이나 所願成就

藥價 一劑特價十圓 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는 周旋人께一劑 無料進呈

神人道師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兼病·健康長壽劑

萬金不換의 此事實!

●朝鮮의 貴族 兩班 大臣 各界朝野名士諸氏의最大賞贊 愛用을 밧는 補藥은 事實 事實 百補丸뿐입니다

●今回 獨逸伯林에서열닌 萬國大運動會選手에게까지 愛用된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이며 百補丸은 補血、强壯劑로 果然 世界第一임니다

●世上에는 別別 虛無誇大한 廣告도만흐나 事實 百補丸과갓치 効力조흔藥은 다시업슴니다

●百補丸의 偉大한効力은 只今 區區한 說明을할必要가 업사오니 廣告보다 事實을밋고 쓰시요

◎◎靑春을 延長하고저하는사람 不老長壽를 希望하는 사람은 쓰사요

◎過飮過色人께特速効합니다

初秋、天高馬肥節이라 健康回復의 最好期는왓다

●여름장마와 더위에 全身이衰弱하여진분

●性慾이減退되고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분

●消化不良 체중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四肢가 勞困한분

●肺가不足하야 活氣가업고

●氣血이 不足하야 全身의 元氣가 업는분은 早老할 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世界的補血强壯劑 百補丸을服用하여完全이하고 씩씩한 靑春의 所有者가되시요

◎나무가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물을주지아니하면그나무가엇더케됩니가

◎사람이性慾이줄고氣力이업고 勇氣가나지아니하는때는조흔 補藥을아니쓰면마르려는나무에물아니준것갓치悲慘하게됨니다

京城府堅志町(五ノ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 五番 電光六三二番

經濟解說

小運送의統制

朝鮮非合同業運命

李 ○ 鎬

×

鐵道輸送과 不可分의關係에잇는것은 運送業으로서 이運送業은 어느것을 勿論하고 恒常鐵道를 떠나지안코 鐵道驛을中心으로서도 그數量에 끌치는바잇섯다. 日本內地의運送界를보면 鐵道가 新開通될때에 만히 汽車發運送을하기위하야 구루마 한채나 집만가지면 누구나自由로運送業을할수잇고 그資本이나 別로合用이 업는사람일지라도 이버리할수잇는만큼 그數는鐵道開通에 正比例하야 運送業者가 續出하엿고 明治四十年에는 運送業者의 數가 五千에 達하엿섯고 이런 中에比較的大規模의 運送業者로서는 內國通運外數十店이잇섯을뿐이엇다.

×

그러나 近年에와서는 業者는 合同하게되는것은 資本主義的經濟組織下에서는 免할수업는일로 日本內地에 잇서서의 運送業의 所謂統制는 明治三十一年 東京、橫濱、名古屋、京都、大阪、神戶等 六大都市有力業者가 「全國運輸研究會」를 組織코 不良業者의 淘汰統制力이 업는만큼 그成果를 收치못하얏스며 大正八年에至하야 鐵道省에서 運送店公認制度를 實施하얏고 運送取扱人規則을 制定하얏스며 大正十五年에는 小異大同主義下에 業者들의 大合同을 慫慂하야 現國際通運社長 中野金次郞氏等의 힘으로 合同運送株式會社가 생기고 昭和三年에는 現在의 國際通運이 생기게되엇스며 昭和十二年公認制度대신에 指定運送取扱人制度를 實施하고 宅扱을 開始하야 鐵道의責任으로써 戶口에서 戶口까지의 運送을 引受하고 國際通運은 更히 下請負會社로서 合同運送인 子會社를 成立케하야 一驛一店의 指定主義를 實施하고 驛構內의 占的業者들 鐵道에 配屬된것이 지금까지의 運送業의 沿革이오 運送統制의 經過이엇다.

×

以上에依하야 鐵道省은 驛의 指定業者制度、運送業의 統制를 强化하야 小運送業統制와 官營一元化를 目標로한것이 二十數年의 歷史를 가지고잇다.

1、指定運送取扱人三千人과 指定외 小運送業者는 數千人의不適當한 運送業者와 2、運送業者와는 違法行爲(行年千件以上)이라던가 引換證付貨物假託等에 對하야서의 不法行爲等 業者가 잇슬뿐아니라 現在 日本內地에서 小運送에 依한 國民의 運送料에 支拂하는 金額은 一年間 十七、八億圓에 達하는데 이것을 適當히 整理統制하면 相當한節約을할수잇는터로 今年九月十五日 閣議에서 前田鐵相이 小運送統制의 具體案을 提出하야 小運送業界에 一大刷新을 주어고 日本內地는 勿論이어니와 朝鮮內運送業 特히 朝鮮人의 經營하는 多數한 非合同運送業者에게 重大한關心을 가지게되엇다.

×

鐵道省에서 多年의 懸案인 小運送을 此際에 根本的으로 統制코저하야 今回의 統制案을 作成키에 着手한것은 今年六月頃으로 官民有志로 任命하야 小運送法案과 小運送會社案의 立案을 보게된것인바 그兩法案의 要旨는 아래와 가다.

◆小運送會社設立=運送店의 業務는 各地區運送業者와의 出資로써 取扱하고 그業績을 生하고 그資産의 決濟에 依하야 小運送業者 相互의 直接配給을 計劃 行하며 統制를 行하고 各自들 그 競爭의 回避에 依하야 그結果 運送業의 合理化、料金及서비스의向上에努力함

◆免許法規의制定=大正十五年의 合同에依하야 全國八千店의 業者들 半數인 四千店으로 減少시켯스나 지금은 다시 合同以前에 達하는 運送店의 業者들 實現하야 그使命을 達하는 小運送店의 業務를 許可하는 公共性으로보아 甚히 不穩當하다. (未完)

換金手續不便等 農家의影響莫大

米穀自治管理法 朝鮮施行規則公布

每人資格收穫量正租三十石 組合員約四十萬名

來十一月一日부터 施行될 米穀自治管理法의 朝鮮內의 施行規則은 十九日付官報에依하야 府令으로 發布되엿는데 이에依하면 第一次統制를 目標한 生産者의 米穀統制組合은 그組合員資格은

一、地區內에 잇서서 水稻一町五反正步上을 自作하는者

二、地區內에서 水稻三町正步上에對한 權利를가지고 米穀을小作料로 밧는者

三、地區內에서 水稻畓을 自作及小作하는者로서 그自作하는面積의 二倍에 相當하는 面積과 그小作하는 面積과의合計가三町步以上에 達하는者

五、地區內에서 水稻畓을 自作또는 小作하고 又는 水稻畓을 自作及小作하는者로서 水稻畓의 面積의合計가 三町步以上에 達하는者 但 自作하는面積에 對하야는 그二倍에 相當하는 面積으로서 計算함

이라고하야 組合員의 資格은小作人에 잇서서는 三町步以上、自作兼小作人에 잇서서는 三町步未滿 自作農에게는 一町五反步의 耕作者로부터 包含케되여잇다

그러고 地方狀況에 依하여必要가 잇다고 認할時는 道知事가 總督의認可를受하야 그資格을 變更할수잇다.

이라고 規定되여잇서 그施行範圍에多少 地方實情을 參酌케는되여잇스나 範圍가 彪大함은짐작할수잇다 前五項에依한 組合員의數에對하야 農產課米穀擔任者의말에依하야 約四十萬名으로 每人의資格收穫數量은 正租三十石을 目標로 한것이라한다 이러한範圍에 依하야 同法의發動을 보게되면 農家의大部分이 이에包含되여야할것으로 農家에잇는換金手續의 不便等 影響이 莫大한것으로 觀測되고잇다

地主는十萬戶 自作農廿五萬戶

自小作及小作五萬戶

全朝鮮三百六萬餘戶中 統制組合員이될者는 地主階級約 十萬戶 自作階級二十五萬戶、自小作及小作五萬戶計 四十萬戶를 包羅할 豫定이라한다

米穀商統制組合

總督이地區、數를告示

自治管理의 第二段의統制인米穀商統制組合에對해서는 管理法의 發動時에 總督이그地區와 數量을 告示키로되여잇다

統制組合數는 百八十個所!

十一月中旬組織完了

統制組合은 十一月中旬까지에 全部組織을 完了케할 豫定下에 農産課에서는 各道當局을 督勵中인데 組合數는 全朝鮮을 通하여 百八十個所로 組合設置는 郡單位하되 府에는 隣接郡에綜合케하기로하야 例를들면 京城府는 高陽郡에로 仁川府는 富川郡에로 屬하게할터이다 이가튼 百八十個所의 組合事務所는 事務의 便宜上郡所在地에 두게되것이고 또管理數量은 組合員의資格收穫數量 正租三十石을標準으로 比率의差가 생길터이다

自作農創定은 既定計畫대로

自作農創定事業은 近年의地價의奔騰과 災害發生에依하야 一部에再檢討論이잇서서 知事會議에서도 問題가되엿던것인데 簡保資金의今次의運用利率低下도잇서 既定計畫과가티 繼續하야實行에移키로되엿다한다

即現行創定資金의 貸出率은 四分二厘인데 今次의最低率인 四分의適用을受하면 資金의增額이가ㅣ바되어 地價高에依한 創定資金의增額도 農家의負擔이안되리라한다

增稅는不可恐

增稅가 歡迎할일은 못되것지만 이는 不得已한일이리라 그만한程度는 三月以後지금것 豫想한바이니 새로온 材料가 될것도업다 또한 이는 國策遂行의 必要에서 不可避될것이니만치 三十億圓豫算의 인플레와 마찬가지로 産業方面에 撒布될것이므로 悲觀할것이업다는 增稅도 可하두려울바어려다는 氣勢로교로 今後의 市場을 支配할 底力이아닐가? 詳細한內容이나 增率은아직 發表되지안엇스나 如何튼二億五千萬圓程度라면 增稅定히恐怖할바못된다는것이다

石油株奔騰=요지음 軍需株나 重工業株가 特히 注目되고잇는 이때에 또今朝에는日石이 石油關稅引上說로 一擧에 二圓高를보여 朝石와 氣配가 强한것도 注目할만하다.

하는데 特히 鐘紡은早日人氣가 東新으로 集中하는關係로 東新方의 第一次目標가 百四十圓이 東新株中의 最有力株로 注目되고 이에 新規買師도잇서 小이기는하나 新規買師는 百四十圓로 反撥하기를 三四日이나 市勢가업나마나 마치 올가것은 지하히 앞일이다 本格的大市場을 볼것을 暗示하는것가려 四十圓臺에서 揉合하고잇다 그러나 市勢가 投機的色彩가 濃厚한 味를떠나 警戒를 要할바가잇다고一部에서는 말한다

京城·仁川의 朝鮮酒合同

追後로一元合同進行

朝鮮酒統制는 酒稅行政見地에서 酒造業者間에서도 各種調査研究를 進行中이던바 京畿道當局에서 全朝鮮에 率先하야 京城、仁川에서 具體化해질것이라한다

京城에서는 各朝鮮酒醸造業者五十有餘軒을 網羅하야 販賣會社를 新設할 案으로 大體 資本金을 五十萬圓으로하려고 京城酒造業者를 中心으로 着着 進行中이며 또 仁川의 統制는 어떤 다 今月中에 新設會社로 하기로되엿는데 兩者의 合同은 會社로잇섯는데 兩者의合同 案대로 京城區內의 一元統制實現이 豫想되다

또 各道에서도 各各 朝鮮酒統制는 緊要한 問題로 研究中이므로 이京仁統制를 雛形으로 朝鮮的으로 進行될것으로 豫想되는바이다

"商工組合令實行 正租生產檢查

輸入粟斤量統一等要望" 米穀大會에서決議

第三回穀物聯合會大會는 十九、二十兩日間 咸興에서 開催하야 連日愼重審議한結果 各協會로부터의 提出議案은 如左히 決定되고 二十日午後四時半 無事閉會되엿다

一、商工業組合令施行要望件(可決)

二、營業稅를 營業收益稅로改定要望件(可決)

三、米倉의 倉敷料引下要望件(可決)

四、穀物業者의 商權擁護에 關한件(可決)

五、電信料金引下와 取扱時間을 日本內地同樣으로 改定要望件(可決)

六、低利資金을 穀物業者에게均霑키를 要望件(可決)

七、正租의生産檢查促進要望件(可決)

八、口狹制限要望件(可決)

九、玄米檢查의正味重量制實施要望件(可決)

一〇、袋入白米의檢查手料引下要望件(可決)

簡保資金 大幅引下

◇四分利出現

朝鮮簡易生命保險事業諮問委員會第十五回會議는 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 本府第二會議室에서 會長大野政務總監以下 各委員及關係官出席으로 昭和十一年度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資金運用計畫에關한案件이 協議되엿는데 次의 件案에對하야 審議한結果 全部原案대로 可決하여 即日總督에答申하엿다

一、昭和十一年度積立金 資金第三回融通額內定의件

◆事業別內定額

公益質屋	一件	一〇、〇〇〇圓
公設市場	五	[illegible]

◆道別內定額

白金市勢續落

三落의 勢를 보이고 잇는 白金市勢는 今二十一日에는 買二十圓丁 賣二十六圓丁으로 買二圓低 賣一圓低의 市勢로 各하續落되엇다. 白金은 去般 暴騰以後 市勢가 "노미날"이되어 實物이 잇스되 買物이 업는 關係로 賣價가 잇스되 그價格으로 買進해오지안홈으로 結局 買方이 唱導하는 買價에 追隨함과 가튼 奇現象으로 續落步調를 보이고 잇다고 한다。

取引停止

(九月十一日) 鐵商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番地三興商會代表者金壽福

商況 [廿一日]

株式 對中念盧 鈍狀

前場保勢

再昨前場에 百三十九圓五十錢에 止場한 東新은 今前場에는 九月丁에 五十錢低로 寄付하고 日産八十三圓丁朝取八十九圓二十錢 朝新三十三圓七十錢 大新七十三圓丁 鐘新百七十二圓 九十錢에 各其寄付한後 東新百四十圓丁、朝新三十七圓臺를 보엿스되 比較的閑散裡에 保勢이엇다

後場不勢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十錢 日産八十二圓五十錢 朝新三十七圓丁三十六圓八十錢으로 不勢이엇다

揉合이나底强

九月中旬의 貿易入超와 豊台의日中軍衝突事件、漢口事件等을 傳하야 再昨前場은 一波瀾을 보엿스나 實材料出淸이란 觀念下에 東阪兩地의 大仕手側의買進하는關係로 容易히 低價를 不許하는 氣配이다

實物前場取引

◆貯蓄銀行三三、〇◆朝日二八、◆朝鮮製絲三、〇

▲北濱情報

[illegible]

六感

(株)……石油關稅引上說로 今朝에 日石이 一擧에 二圓이 暴騰하야 衝動을 惹起 ◆東新이 百四十圓關門에서 揉合하고 三四日 上放하야 下押이나? 氣迷가 깁다 ◆實材料出盡이라고 强氣는 買戰이모양이나 日中關係는 普通이지 안흘것이며 押目가튼 押目이어서 치히여올녀 노앗스니 市勢가 로라도 一落이 잇슬것이라 하야 押目買의 모양

(米)……阪地 田中貢은 三十萬石을 目標로하고 買占하는 中이라나 그러나 信用할수업는말◆同氏가 擁護하엿는 蓬萊米 八十萬袋中에서 半數以上이나 恐怖的投賣를 하고서 定期에 三十萬石을 買占하리라함은 不可思議◆仁川에 保留된 政府米 六萬叺을 來二十四日에 拂下하겟다고 此亦弱材의 一助? ◆今日은 二十日이오 再明日은 彼岸이다 此日만 無事經過하다면日本內地米 六千五、六百萬石收穫은 無難하리라고 弱氣說이濃厚

期米 少幅往來 保合

前場反落

再昨後場은 阪地三十圓四十三錢으로 止하고 二十九錢에 寄付한後 阪地二圓四十六錢에 同値로 一掃하고 東米는 一圓二十六錢에 保合으로 ...

後場保合

後場도 二十七圓九十七錢 ... 止하엿다

當分此邊揉合

昨休日中에 阪地正米二十錢高와 田中貢、海塚等一派가 絶對買占을 目標로하고 買進하는 形勢로 十萬石을 目標로하고 買占할 方針이라는 二萬石에 이르러 ...

仁川在米減少[仁川]

本月廿日現在仁川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米는 一五、七六八叺의 減少를 示하엿는데 在品叺의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五五、〇九五叺五斗入五九八叺◆白米一、一九八俵入一七俵◆正租叺二二五、八〇一叺◆大麥(裸)四八九叺◆小麥三、〇一五叺◆糯白米六四六叺◆粟六、九五九俵◆黍三八六叺◆糯白米一、三〇五叺(蒙丸)二、九一〇袋◆豪玄三、七四〇袋 日本內地米七七三袋

仁川在庫官米

六萬叺拂下決定

[仁川] 仁川在庫米中政府米六萬叺을來二十四日에 前回와如히指名拂下하기로 決定되엇다한다

堂島前場情報

彼岸天候 如何로買氣가 加하야

今日財界 (廿一日)

◆米 (單位圓)

仁川正米	前	三一九〇
大阪正米		
朝鮮正米 一石		
正租(仁川)一石		
一斤		

◆市中金融

◆綿 (單位圓)

東京國債市況

(東京商議所發) 出來米의 模樣 今週도 概觀하야 四分利債 一、二回共히 五分利도五厘 乃至十錢低되엇는데 佛債은 奕込買氣가 下旬이어서 反落氣味이엇다

彼岸日接延과 各地天候一觀

今日은 二百二十日 再明日은 彼岸中日인데 天氣를 注意하야 當局에서는 警戒하고 잇다

各地正米

京城少硬

當用側買物에二十錢高하엿스나 市況은 依然不振이엇다 ㊀三等三〇、〇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三二、五〇

仁川反撥

日本內地側의 當用買物에 二十錢反撥하엿스나 定期低로 買氣不續하야 一般形勢觀望의 狀態이엇다 ㊂三等三〇、〇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三三、〇〇

釜山不變

休日前同樣으로 當用側小口의 補充買가 散見될뿐이오 市況은 活氣가업는데 定期一息에 保勢이엇다 ㊂三等二九、七〇 四等二九、四〇 一等

大邱崩落

定期凡調에 買行不振이오 氣迷人氣가 濃厚한 이때에 秋夕이 가까워 換金實物殺到로 氣配 又復 五十錢崩落이엇다 ㊂三等二九、〇〇 四等二九、二〇 四等白米三二、四五

白米一三、一六

群山底堅

오래동안 買騰하던 日本內地側의 買注文으로 取引이 多少 進捗되는 形勢이고 市勢는 休日前보담 다시 五錢高唱이엇다 ㊂三等三〇、二五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閑散

淸算不送期에變

朝取期米取組

◆賣方 ◆買方

東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仁川期米 紺谷取引店 仁川海岸町

土金 石金 分析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2)三三一六番 振替京城一五四番

期米 光皿 金益証券 仁川 金益豆商店

期米株式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以下 相場表: 海外經濟、金融、日本銀行勢、朝鮮銀行勢、金買入價、東京市中金銀價、京城府中金銀價、外國爲替、仁川正米、京城雜穀、京城綿絲布市勢、京城綿布、飯粁紗冷價、日本麥粉市勢、滿洲商況、大連特產市勢、朝取短期賣買高、東京現株、東京短期取組、朝取期米賣買高、朝取期米、大阪短期、大阪長期、大阪短期取組、群山期米、釜山期米、大邱期米、木浦期米、大阪期米、大阪正米保值、大阪市中在米高、日本各地期米、東京期米、大阪期米取組、各地正租市勢、大阪綿絲、大阪棉花、大阪人絹現物、各地人絹、橫濱生絲、大阪砂糖、海外砂糖、外國貿易 — 廿一日 數值表, 判讀困難)